<한국문학탐방 1 조>

퇴계 이황

목 차

1. 생애

2. 학문

3. <도산십이곡>에 대하여

4. 퇴계 관련 유적들

20041139 박은서
20051114 박경남
20051117 박은희
20081132 이재혁
20081144 한혜림

1. 생애

1501 년(연산군 7 년) 경북 안동에서 퇴계이황은 5 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다. 퇴계가 태어나고 얼마 후 부친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박씨 밑에서 자라게 된다. 퇴계는 6 살 때 처음으로 이웃 노인에게 글을 배웠고 12 살 때 숙부에게서 논어를 가르침 받았다. 퇴께는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벽을 보고 앉아 책을 읽을 정도로 글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20 세 때는 '주역'을 연구하는데 먹고 자는 것도 잊을 정도로 몰두하여서 훗날 몸이 허약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21 세 때 퇴계는 진사 허 찬의 딸과 결혼하여서 첫아들 준을 보았으나 27 세 허 씨의 죽음으로 권 전의 질녀인 안동 권씨와 30 세에 재혼을 하였다.

퇴계이황

27 세부터 도에서 치루는 향시를 비롯한 여러 시험에서 합격하였고 34 세때는 대과에 급제하여 승문원권지부정자로 벼
슬을 시작하게 된다. 벼슬을 시작하고도 끊임없는 학문연마에 임하다보니 종 3 품인 성균관 대사성에 이르게 되지만 벼슬보다는 공부에 뜻을 가지고 있다보니 빈번하게 수여되는 높은 벼슬에도 병을 칭하여 사양했다. 퇴계는 고향에 돌아와 토계 가에 양진암을 짓고 귀향의 뜻을 굳히고 이때 토계를 퇴계라 개칭하고 스스로 호를 퇴계라 부르기 시작했다. 숙청으로 인한 중앙계의 혼란으로 이황은 외직을 자칭하여 단양군수로 9 개월을 지내다가 풍기군수로 1 년 2 개월을 지낸 뒤 49 세에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특히 풍기군수 시절.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을 조정에 요청하여 소수서원이라는 최초의 사액을 받게 하여 사액서원의 효시가 되었다. 50 세에 예안 하명동에 한서암을 짓고 학문에 전념을 했다. 53 세 성균관 대사성에 제수 되었으나 사퇴를 하고 그 후에도 끊임없는 왕명으로 벼슬의 임명과 사퇴가 반복되었던 것이 특징이다.

또한 50 세 이 후 시기에 퇴계의 저술이 가장 활발했다. 현재 그의 저술 가운데 [천명도설:天命圖說],[天命圖說後敍],[고봉 기대승:高峰 奇大升],[사단칠정논변:四端七情論辨],[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자성록:自省錄][전습록논변:傳習錄論辨],[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 그리고 [성학십도:聖學十圖] 등은 한국 유학사상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조에는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글씨에는 [퇴계필적:退溪筆迹]이 있다.

도산서원

57 세에 도산서당을 지을 터를 마련하고 3 년후 60 세에 바로 이곳 도산서원이 세워졌다. 도산서원은 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그 후 1570 년 (선조 3 년) 퇴계이황 나이 70 세에 세상을 떠났다.

-20081144 한혜림

2. 학문

1. 이기론 [1)]

조선조 유학의 학문성격을 일러 성리학(性理學)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리학의 학문내용은 이(理)와 기(氣)라는 두 원리로써 우주와 인생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리학을 다른 말로 표현하여 이기철학이라고 한다.

이 이기철학은 본래 중국의 송나라 때 일어난 학문이다. 퇴계는 이기론의 이론이 기본구조가 되는 주자철학을 수용하여 그 이론을 더욱 자세하고 철저하게 정리, 전개시켰다.[2)]

성리학의 이기론은 인간과 사물의 존재를 그 구조와 근원에서 이(理)와 기(氣)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특히 인간의 심성정(心性精)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적용됨으로서 심성론으로 발전하였다. 퇴계는 <천명도설>에서 마음(心)을 이(理)와 기(氣)가 결합한 것이라는 기본 인식 위에서 성(性-성품)과 정(精-감정)을 통섭하는 주체로 파악하였다. 곧 성과 정은 인간의 마음에 내포된 두 차원의 존재양상이며, 성은 이로서 마음의 본체요, 정은 이와 기가 동시에 드러나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인식하였다.

퇴계는 화담 [3)] 가리켜 이와 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기 한편에 치우쳤다고 하는 것을 보면, 퇴계는 화담보다 이에 더 치중하는 태도를 취함이 분명하다. 퇴계는 불멸 항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가 아니라 이이며, 기는 생멸하고 이만이 항존하므로 실재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나아가 퇴계에게 있어 이는 형상적 작용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의욕을 지닌 모든 기의 작용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기의 작용을 주재하는 작용의 근원적 주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보다 귀하고 우월한 것이라는 이귀기천설(理貴氣賤說) 내지 이우위설을 제시한다.

퇴계의 호발설(互發設)에 따른 이기이원론적 이론은 기로부터 이가 발동의 주체로서 독자성을 확보하는데 특징이 있는 만큼, 주리론의 성격을 명확히 정립시켜 나갔다.[4)]

2. 궁리와 거경

> **궁리(窮理)와 거경(居敬)은 비록 수미(首尾)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실지에 있어서는 양단 의 공부이다. 그러나 결코 분단되는 것에 마음쓰지 말고 반드시 호진에 힘쓰도록 하라.[5)]**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궁리와 거경은 지(知)와 행(行)의 관계로서도 볼 수가 있는데 선생은 이 지행이자(知行二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생각건대 지행은 두 수레바퀴나, 두 날개와 같은 관계에 있고, 서로 선후가 되며 서로 경중(輕重)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중략) 시지(始知)에서 지지지지(知至至之)에까지 이르고 시행(始行)에서 지종종지(知終終之)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니 서로 관철되고 서로 도와서 호진(互進)하는 것이다.**

---

1) (理): 만물이 만물 되는 법칙. 기(氣): 만물이 만물로서 구성되는 물질적 소인.

2) 이완재, 공자에서 퇴계까지」(이문출판사,2001), pp.304-305.

3) 화담 : 일찍이 화담은 기에 치중함으로써 기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였다. 이는 다만 기의 작용에 따라 생각될 수 있는 기작용의 조리 또는 질서라고 밖에 보지 않았다. 화담은 이렇게 이를 기의 한 가지 속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를 기일원론자라고 하는 것이다. 기 밖에 이가 없으므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기뿐이다. (출처: 네이버=http://cafe.naver.com/taeulgiko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83)

4) 네이버 (http://cafe.naver.com/taeulgiko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83) 5) 율곡선생에게 보낸 편지

이완재, 「공자에서 퇴계까지」(이문출판사,2001), p.253.

궁리와 거경, 또는 지(知)와 행(行) 둘은 별개의 두 가지 공부이면서 서로 뗄 수 없는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다. 비록 양자가 불가분리의 상관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추구의 방도에 있어서는 분명 두 가지의 양단공부라고 하였다.[6)]

퇴계의 수양론의 기본 과제는 경의 실현(居敬)으로 집약된다. 경은 마음을 주재하여 안으로 심성의 도덕적 바탕을 배양하며(尊養), 밖으로 행동 속에서 악이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성하고 억제하는(省察) 수양론적 원리이다. 경의 원리에 따라 인간의 심성에 깃들어 있는 천명의 준칙을 지키고 천명을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완성을 지향하는 수양공부는 도학의 출발점이요 목적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시되어 왔다. 따라서 퇴계가 심·성·정의 성리학적 분석적 인식과 경의 수양론적 실천을 추구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도학적 체계가 요구하는 인간의 인식방법이요 실현방법으로 통일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식과 실천의 문제도 선지후행설로 계층화시키지도 않았고 지행합일설로 혼융시키지도 않았으며, 인식과 실천이 상호작용하는 지행호진설 속에 인간의 향상과 성숙이 추구되고 있다.[7)]

3. 사단칠정을 통해 본 이(理)와 기(氣)

이기는 '서로 섞일 수 없는 원리'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원리'의 두 원리에 입각하여 사람의 심성을 알뜰하게 설명했다고 할 수 있다. 이 해명은 결론적인 명제를 소개하면 "사단은 이(理)가 먼저 발하고 기(氣)가 따라가는 경우"이고, "칠정은 기(氣)가 먼저 발하고 이(理)가 먼저 발하고 기(氣)가 따라가는 경우"이다. 퇴계의 이러한 입장을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이라고 한다.

성리학에 있어서는 이기의 선악문제를 설명하되 이는 순수한 법칙이니 선할 수밖에 없고, 기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맑고 가벼운 기는 선할 수 있으나, 탁한 기는 악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선한 감정은 이(理)에 속하고 선하지 못한 감정은 기(氣)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단(四端)과 같이 순수하며 선한 감정은 이(理)가 발한 것이고, 성내고 욕심내는 것 등 칠정(七情)은 기(氣)가 발한 결과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理)가 없는 기(氣) 없고, 기(氣)없는 이(理)는 없는 법이므로 비록 사단이 이가 주로 작용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기가 따르게 되고, 칠정이 기가 주로 작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이가 깃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051117 박은희

3. <도산십이곡>에 대하여

이 작품은 조선 명종(明宗) 때 이황(李滉)이 지은 연시조 [8)](連時調)로서, 작자가 만년에 안동(安東)에 도산 서원을 세우고 학문에 열중하면서 사물을 대할 때 일어나는 감흥과 수양의 경지를 읊은 것이다. 모두 12 곡으로 이루어졌으며, 작자 자신이 전 6 곡(前六曲)을 언지(言志), 후 6 곡(後六曲)을 언학(言學)이라 하였다. 전 6 곡은 자연에 동화된 생활을 하면서 사물에 접하는 감흥을 노래한 것이고, 후 6 곡은 학문 수양에 임하는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중국문

---

6) , 공자에서 퇴계까지(이문출판사,2001), pp.253-254.

7) 네이버 (http://cafe.naver.com/taeulgiko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83) 8) 연시조: 하나의 주제 안에서 평시조가 여러 개 연달아 있는 시조

학을 차용한 곳이 많고 생경한 한자어가 많아 문학적으로는 높이 평가할 수 없지만 인간 속세를 떠나 자연에 흠뻑 취해 사는 자연 귀의(歸依) 생활과 후진 양성을 위한 강학(講學)과 사색에 침잠[9](沈潛)하는 학문 생활을 솔직 담백하게 표현해 놓은 점이 훌륭하다.

(1)
이런들 엇더하며 뎌런들 엇다하료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하료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텨 므슴하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공명이나 시비를 떠나) 산다고 해서 어떠하랴?
더구나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고질병처럼 된 버릇을 고쳐서 무엇하랴?

(4)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듯디 됴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이 보디 됴해
이 듕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옥 닛디 몯하얘

그윽한 난초가 골짜기에 피어 있으니 듣기 좋아
흰구름이 산마루에 걸려 있으니 자연의 경치가 보기 좋구나.
이 중에 우리 임금님을 더욱 잊을 수가 없구나.

(9)
고인(古人)도 날 몯 보고 나도 고인 몯 뵈
고인(古人)을 몯 뵈도 녀던 길 알페 잇네
녀던 길 알페 잇거든 아니 녀고 엇뎔고

옛 성현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도 또한 옛 성현을 뵙지 못했네.
옛 성현을 뵙지 못해도 그 분들이 가던 길이 앞에 놓여 있네.
가던 길(진리의 길)이 앞에 있는데 나 또한 아니 가고 어떻게 하겠는가?

(11)
청산(靑山)은 엇뎨하야 만고(萬古)애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엇뎨하야 주야(晝夜)애 긋디 아니난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

푸른 산은 어찌하여 항상 푸르며,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부지런히 학문을 닦아서) 저 물 같이 그치는 일 없이 저 산 같이 언제나 푸르게 살리라.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의 이해

제 1 곡은 서곡(序曲)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세상의 명리(名利)를 떠나 자연에 묻혀 한가로이 사는 생활을 그린 것이다. 이미 세속사(名利)를 떠나 자연에 묻혔으니, 아무렇게나 산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草野愚生(초야우생)'은 자연에 묻혀 사는 자신을 겸손하게 일컫는 말이고 '泉石膏肓(천석고황)'은 자연을 사랑하는 자신의 병은 이미 고칠 수 없음을

9) : 마음을 가라앉혀서 깊이 생각하거나 몰입함.

강조하여 지극한 자연애(自然愛)의 사상을 나타내었다.

제 4 곡에서는 자연에 몰입해 있으면서도 완전히 자연에 귀의하지 못하고, 나라에 대한 걱정과 임금님을 생각하는 연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벼슬을 떠나 자연 속에 묻혀 지내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늘 연군(戀君)의 정이 떠나지 않음을 노래한 것이다.

제 9 곡에서는 예 성현과의 교감을 오직 서적 탐독[10]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그 길은 학문에의 정진으로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제 11 곡에서는 변함없는 의지와 학문 수행으로 덕을 닦으려는 결의가 나타나 있다.'萬古常靑'하겠다는 의지와 결의를 보인 내용으로, 청산(靑山)은 만고(萬古)에 푸르러 영원하며, 유수(流水)도 주야로 그치지 않아 영원한데, 우리 인간은 왜 순간자(瞬間者)에 지나지 않은가? 우리도 저 청산같이 저 유수같이 언제나 푸르러 그치지 않겠다고 노래했고, 만고상청(萬古常淸)이란 끊임없는 학문 수양으로 영원한 진리의 세계에 사는 것이요, 옛 성현과 같이 후세에 이름을 영원히 남기는 것이다.

-해설

[1] 본래 우리 시조 문학은 은일 문학(隱逸文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은일 문학이란 일종의 현실 도피적인 경향을 의미한다. 이 시조는 도산십이곡 가운데 전 6 곡의 서곡(序曲)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은일 문학으로서의 현실도피 적 경향이 짙은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에 정이 들어 이것을 버리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작자 자신의 지극한 자연애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자연 귀의(自然歸依)에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4]초장에서는 그윽한 난초의 향기를 드러내어 후각적인 효과를, 그리고 중장에서는 흰 눈을 등장시켜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난초와 흰 구름은 인간의 영욕 성쇠(榮辱盛衰)로 점철[11]이 된 속세와는 무관한 것들로 탈속(脫俗)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비유어들이다. 하지만 중장에서는 벼슬을 떠나 자연 속에 묻혀 지내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연군의 정이 떠나지 않는 작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자연에 몰입은 하면서도 완전 귀의(歸依)를 하지 못하고 있다. 종장의 '피미일인(彼美一人)'은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요, 초장의 '듣디 됴해'의 '듣디'는 한시에서 향기를 맡는다는 뜻으로 '문향(聞香)'이란 어휘를 사용한 표현의 미라고 할 수 있겠다.

[9]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옛 성현들이 걸었던 학문 수양의 길'이라고 해석하고 보면 뜻이 더욱 확실해진다. 이 시조의 수사법 (修辭法)상의 또 하나의 묘미는 앞 구의 끝말을 뒷 구의 첫말로 가져와 그 뜻을 이어 나가는 연쇄법(連鎖法)을 쓴 데에 있다. 옛 성현들의 길을 본받고자 하는 작자 자신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고 ,또한 옛 성현과 군자들이 행하던 인륜 대도(人倫大道)를 오늘날의 우리들도 실친 궁행(實踐窮行)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11]'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는 구절은 끊임없는 학문 수양으로 영원한 진리의 세계에 살고 싶은 마음을 토로한 것이라 하겠다.'靑山'과 '流水'의 영원성은 순간자인 인간에게는 영원한 동경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 참고자료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의 발문(跋文).

여기서 나타나는 퇴계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시가에

---

10) : 어떤 글이나 책 따위를 열중하여 읽음.

11) 점철: 흐트러진 여러 점이 서로 이어짐

대한 불만. 둘째, 노래하려면 시속말로 엮어야 한다는 것. 셋째, 이것을 노래함으로써 더러운 마음을 씻고 감발유통하여 서로간에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시가란 한림별곡류와 이별의 <육가>를 이름이다. 퇴계는 한림별곡류는 교만 방탕하고, 또 비루하고 희롱하는 뜻이 있어 군자가 숭상할 바가 못되고, 이별의 <육가> 또한 온유돈후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결국 <도산십이곡>이 이와 다른 내용을 담을 것임을 내포한 것이다.

다음으로 시는 노래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노래하려면 시속말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의 이러한 음악에 대한 태도는 한국시문학사의 전개에 있어 시인들의 전체적인 특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향가 이전의 고대 문학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인들도 음악과 분리된 상태에서의 시가 제작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퇴계는 위의 발문에서 시가를 짓고 감상하는 일을 '한가한 일'로 보고 그것이 '말썽을 일으키는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시가에 대한 이러한 그의 태도는 당시 사림의 일반적인 풍조를 대변하고 있다. 시가를 짓는 일이 '한사(閒事)'이며 자칫 구설수에 오르기 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산십이곡>을 지은 것은 '시조'라는 형식에는 이전의 한시와 다른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崔珍源은 이 한시와 시조의 차이를 '詠'과 '歌'로 파악하고 시조의 존재이유를 興에 두고 있다. 이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일반적 생각이었다. 결국 퇴계가 <도산십이곡>을 지은 것은 그의 음악에 대한 관심과 취향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고 또 당시 시조를 '歌'로 파악한 일반적 행적에 근거해서 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퇴계는 시조가 노래하는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유익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기존 시가에 대한 반발은 <도산십이곡>의 내용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형식으로 '시조'가 택해졌다. 그렇다면 '서로 간에 유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한다 하겠다. 즉, '서로 간에'라는 조건이 합당하기 위해서 많이 불리워져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선택된 양식이 <도산십이곡>인 것이다. 또한 '유익함이 있어야'하기 위해서는 온유돈후 12)의 뜻을 담아야 한다. 그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믿음직스러운 실상'을 표현하여 '비루하고 인색한 것을 씻고 느낌이 발동하여 원활하게 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송의 성리학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퇴계가 성리학과 더불어 성리학자들의 한시를 수용했지만 그것을 한시로 모방함에 그치지 않고 국어로 시조의 형식을 빌어 그들의 뜻을 폈던 것이다. 이는 국어 의식의 진전에 큰 힘이 되었던 바라고 할 수 있다.

-20051114 박경남
-20041139 박은서

4. 퇴계 관련 유적들

12)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인정이 두터움

-도산서원 (사적 제 170 호)-

도산서원(陶山書院)은 1574 년(선조 7 년)에 이황의 제자들이 그보다 4 년 앞서 세상을 떠난 이황의 학덕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도산서원의 위치는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번지에 위치하여 있다. 본래 이 자리는 이황이 은거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도산서당이 있던 곳인데, 지금은 안동댐의 건설로 인하여 호수처럼 변한 낙동강의 상류를 굽어보는 지점에 있다.

-계산서당-

만년에 퇴계 선생은 은퇴하여 종가 건너편에 조그만 계상서당(溪上書堂)을 지어 후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는데 많은 제자들이 입문하여 장소가 협소해지자 후에 도산서당으로 옮겼다 한다. 율곡 이이가 23 세 때 당시 58 세의 퇴계 이황을 만나서 3 일간 머무르며, 학문과 시를 논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20081132 이재혁

<한국문학탐방 2조>

이육사의 시세계와 그 현대적 평가

목 차

1. 작품연보

2. 시세계 (청포도, 절정)

3. 이육사에 대한 평가

20041184 한상우
20051106 김선미
20051121 변민영
20081101 강주희
20081105 권서희
20081113 김희찬

1. 작품연보

년	나이	연보
1926년	22 세	베이징에서 수학, 광뚱성 광저우 쭝산대학(中山大學)에서 후학기 수학(이활李活 이름 사용)
1930년	26 세	1 월 3 일 첫 시(詩) <말>을 조선일보에 발표(이활), 10 월 《별건곤(別乾坤)》에 이활(李活)·대구이육사(大邱二六四) 이름으로 <대구사회단체개관(大邱社會團體概觀)> 발표
1934년	30 세	4 월에 『대중(大衆)』 창간호에 평문 <자연과학(自然科學)과 유물변증법(唯物辨證法)> 게재, 시사평론 다시 집필 시작.
1935년	31 세	정인보 댁에서 신석초 만나 친교, 다산 정약용 서세 99 주기 기념 {여유당전서} 간행에 참여, 신조선사(新朝鮮社)의 {신조선(新朝
1937	33 세	서울 명륜동에서 거주, 평문 성격 바뀜(시사에서 문학으로)
1939	35 세	종암동 이사, <청포도(靑葡萄)> 발표
1940	36 세	시 <절정>, <광인의 태양> 등 발표
1943	39 세	한글 사용 규제 받자 한시(漢詩)만 발표.
1944	40 세	1 월 16 일 새벽 북경의 일본 영사관 감옥에서 순국.
1945		동생 원조가 유시(遺詩) <꽃>, <曠野> 소개
1946		원조에 의해 『육사시집(陸史詩集)』 출판됨
1956		조카 동영에 의해 『육사시집(陸史詩集)』 출판됨

20081105 권서희
20081113 김희찬
참조 : http://www.264.or.kr

2. 시세계

청포도(靑葡萄)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절이주절이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닯은 몸으로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두렴

청포도는 1939 년 8 월호 「문장(文章)」에 발표된 시로 '절정', '광야', '꽃'등과 함께 시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다.

이 시 해석의 문제는 "청포도라는 한 사물을 통해서 느끼는 작자의 고국을 향한 끝없는 향수와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올 대상에 대한 염원을 주제로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와 "이곳에 보이는 '흰 돛단배'나 '청포를 입고 찾아오는 손님'이란 결국 잃어진 조국과 조국을 찾아 투쟁하는 지사들의 표징에 틀림이 없다."와 같이 미리 설정된 몇 가지 고정관념을 의미파악의 기준으로 강제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조국 광복에의 기다림' 등의 관념을 일단 철회하고 작품의 문맥에 직접 부딪쳐 갈 필요가 있다.

그곳은 '청포도'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생명의 풍요함과 평화가 있는 '고향'이다. 이 작품이 설정하는 '내 고장'은 아마도 유년의 육사가 체험하였을, 그리고 어두운 시대의 억압을 벗어나 회복되어야 할 생명의 공간으로 생각된다.

여기를 찾아오리라는 고달픈 '손님'의 의미. 그 의미를 작품의 문맥만으로 볼 때, 그는 이 화해의 삶이란 자리와 분리되어 유랑하는 '고달픈' 자이다. 이 괴로운 분열이 육사가 체험했던 당대 현실의 상징적 표현이라 할 때, '투쟁하는 지사들'은 고달픈 '손님'이 포괄하는 의미의 일부일 수 있다. 새로운 해석을 하나 더 첨가한다면, 그 속에는 이 고향의 조국, 그리고 삶의 공통 근거를 잃고 표랑하면서 고투하는 육사 자신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어느 하나로 작품을 이끄는 대응관계 확정이 아니라 그 전체적 의미의 포괄이며 생명의 풍요함.평화가 있는 세계와 고통스러운 긴장에 선 삶의 화해의 결합'이라는 각도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조국해방'이라는 주제보다 깊이 해방된 삶의 최종 목표가 아니 라 그 전체의 하나이고, 이 작품이 형상화한 기다림의 포괄성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다. 이를 깨달을 때 육사의 시정신이 식민지 시대의 좌절에 맞서 획득한 자기 확인이라는 견해 가 성립될 것이다.

20051106 김선미

참고 : 조창환, 이육사 ; 투사의 길과 초극의 인간상, 건국대 출판부, 1998

절정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이 작품의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앞의 두 연은 상황 설정이고, 다음 둘은 그 속에서의 초점이 모아져 있다. 제목에 이미 드러나 있듯이 이 상황은 '절정'인데 그 첨예함은 불과 4 행의 짧은 호흡 속에 절박하게 상승한다. '북방-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 원-서릿발 칼날'의 점층 구조가 그것이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셋째 연의 극한적 상황인식은 절실하다.

문제는 이 극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있다. 많은 논자들은 이를 '일제치하의 민족적 현실'이라는 각도에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폭압과 민족적 현실의 묘파라는 의미만으로 이 시를 이해하려 한다면, 그것은 이 작품을 형성한 체험의 전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의 극한상황은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그것은 조국상실과 민족 수난이라는 역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한 사람의 투사가 자신의 삶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종적 의의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극점은 물론 고통스러운 자리이다. '매운 계절의 채찍', '겨울' 등의 이미지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일제의 폭압과 추적에 의해 모든 자유로운 생명적 존속이 부정된 상황이며, 내적으로는 의존할 것 없고 아무런 현실적 유대도 업이 홀로 서서 어두운 표랑과 자기방기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위태롭고 고독한 긴장의 지점인 것이다.

마지막 구절은 운명으로 서부터의 비극적 초월과 상승은 이러한 운명과의 뜨거운 해후와 그에 대한 능동적 수락으로부터 획득되어지는 것이다. 특히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라는 결구는 무수한 상황과의 부딪침 끝에 자기극복의 치열한 몸부림의 절정에 도달하여 운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성취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비극적 자기초월의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 구절은 오랜 방황과 갈등 끝에 마침내 자아발견을 성취하고 다시금 묵묵히 삶의 본질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형상한 것일 수도 있다.

20051121 변민영

참고 : 조창환, 이육사 ; 투사의 길과 초극의 인간상, 건국대 출판부, 1998

3. 이육사에 대한 평가

그에 대한 평가는 4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그의 시가 이기주의 비인간화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그의 시는 현대의 기계주의 적 비인간화에 반발하여 인간의 생명 자체를 추구한다. 그의 시는 끝없는 방랑에서의 회상(향수)과 초극 의지에서 비롯된 기다림의 양극에서 분비되는 인간적 고통과 어려움을 시로 형상화함으로써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개인적 서정의 심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육사시의 본도(本道)가 생명 적인 것의 추구에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예술성의 심화에 대한 육사의 끈질긴 집념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전통적 요소를 지닌다. 그의 시가 엄격한 행(行)과 연(連) 구성의 성형 의식과 가락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육사의 시 의식이 고전적인 선비 의식과 한시의 영향, 그리고 유교적 엄숙성에 정신적 혈맥을 두고 있음을 뜻한다.

세 번째, 남성적이고 대륙적인 입김을 불어넣는다. 신시사(新詩史)에 있어 대부분의 시가 센티멘털리즘에 감염된 여성적 체질을 갖고 있음에 비추어, 육사의 시가 여성적 감수성에

대륙적 기상과 남성적 의지를 불어넣음으로써 한국 시가 튼튼한 체질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네 번째, 죽음을 초월하는 정신을 엿볼 수 있다.그에 의하면 시는 행동이며 진정한 의미의 참여라고 한다. 그는 식민지적 압력에 대항하고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대륙을 전전하며 숱한 고난과 역경을 체험하였다. 이러한 역경과 인고의 극복노력은 기다림의 철학과 초인 의지로 승화된다. 온 몸을 내 던진 헌신적 투쟁의 수형(受刑)의식으로 일제에 저항하여 , 그러한 인고와 생명의 절정에서 끝없는 기다림과 초인(超人)에 대한 열망을 시로써 형상화함으로써 보다 진정한 저항 방식을 보여 준 것이다.

20041184 한상우
20081101 강주희
참고 : 새로 쓰는 이육사 평전

<한국문학탐방 3 조>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

목 차

1. 생애

2. 농암의 문학

3. 영남가단과 호남가단

4. 대표작 감상 - 「 (聾岩歌)」,
「어부가(漁父歌)」

5. 관련 유적

20031125 배춘택
20051109 김인혜
20051140 조혜근
20081103 곽현진
20081125 우상진

1. 생애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는 1467 년(세조 13 년)7 월 29 일 안동 예안 분천리에서 태어났다. 자는 비중(斐仲), 호는 농암, 설빈옹(雪鬢翁)이고 본관은 영천이며, 시호는 효절공(孝節公)이다.

농암은 자헌대부 의정부 좌참찬에 증직된 이흠(李欽)과 호군이었던 권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골상이 비상하였다. 9 세에 입학하였으나, 성품이 호탕하여 구애됨이 없고, 사냥하기를 좋아해서 학문에 전력하지 않았다가 19 세에 향교에 들어가서 발분하여 정진하였다. 그리고 22 세에 안동 권씨를 아내로 맞았다.

29 세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32 세(1498, 연산군 4 년)에 문과에 급제, 교서관권지부정자(校書館權知副正字)를 맡게 되었다. 그 뒤 영홍훈도・성균관 전적을 거쳐 38 세 때 선교랑 수사간원정언으로 임명되었다. 그 때 대사헌 홍자아(洪自阿)의 진강이 착란되었다 하여 개차를 청했다가 감옥에 갇혔고, 고향근처인 안기역(安奇驛)에 유배되었다.

42 세때 어버이를 위해 외직을 빌려 영천군수가 되었고 44 세때(1510 년) 명농당(明農堂)을 세웠으며, 46 세(1512 년)에 농암 위에 애일당(愛日堂)을 건립하였다. 밀양도호부사 . 충주목사 .안동부사 .성주목사 등의 지방직을 자처하여 두루 거쳤으며, 대구부사 .평해군수 등을 거쳐 70 세에 경상도 관찰사로 봉직했다. 그 동안 외직과 내직을 오가다가 73 세(1539 년)때 형조삼판이 되어 그 익년에 「걸해골소(乞骸骨疏: 늙은 재상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가기를 임금에 청원하는 소)」를 올렸지만 허락을 받지 못하고 호조삼판, 동지중추의 명을 받았다.

실질적인 농암의 관료생활은 76 세에 끝났으며, 예안으로 귀향하였다. 이때부터 강호의 생활이 시작되었고, 77 세에 영지정사(靈芝精舍)를 건립하였다. 89 세를 일기로 1555 년 2 월 13 일에 긍구당(肯構堂)에서 임종을 맞이하였다.

<조사 : 20031125 배춘택>

2) 농암의 문학

농암(聾巖) 이현보는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뒤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암가(聾巖歌)」, 「어부가(漁父歌)」 같은 국문시가를 창작하거나 개작하여 영남가단을 창사한 인물이다. 그는 연산군 때 과거에 급제하여 연산군 - 중종 - 인종 - 명종의 4 대 임금을 섬기면서 무려 44 년(32 세부터 76 세까지)간 벼슬아치로 봉직하였다

이 기간 동안 주로 외직을 자청하여 아홉 고을의 수령과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는데 치적이 우수하여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으며, 청렴결백하여 청백리로 선발되기도 하였다. 그는 외직을 역임하는 동안 향토에 기반을 둔 사대부 계층의 향촌 자치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고을을 다스렸는데, 벼슬에서 은퇴한 뒤에는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처사적(處士的) 삶의 방식을 개발해 내는데 몰두하여, 후배인 이황이나 이황의 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강호생활(江湖生活)의 풍류(風流)를 즐기는 데는 읊기만 하는 한시보다도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국문시가가 더 유용하다는 사실을 체득하고, 스스로 「효빈가(效嚬歌)」, 「농암가」, 「생일가」 같은 단가(당시는 아직 시조창이 나오기 이전이므로 시조라는 명칭이 없었음)를 짓기도 하였다. 또한 83 세 때 잊혀져 가던 「어부가」(12 장)를 재발견하여 이를 개작하였는데, 이현보에 의하여 개작된 「어부가」(9 장)는 흔히 농암 「어부가」로 불리며 조선후기의 한국문학(문학과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남겼다.

원래 중국의 악부시(노래로 부를 수 있는 시)인 사(詞)에서 유래한 기존의 「어부가」가 우리나라 노래인 장가(당시에는 가사를 장가, 시조를 단가라고 불렀다)로 재창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 농암 「어부가」는 뒷날 궁중의 무용극인 정재(呈才)에서부터 민간의 뱃노래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불려졌고 조선말엽에는 십이가사(십이잡가라고도 함)의 하나인 「어부가(일명 어부사)」로 정착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요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현보는 또 기존의 어부단가 10 장을 5 장으로 개작하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이현보에 의하여 다듬어진 「어부가」(「어부단가」와 구별하기 위하여 「어부장가」라고 부르기도 함)와 「어부단가」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이중경(李重慶)의 「오대어부가(梧臺漁父歌)」, 이형상(李衡祥)의 「창부사」, 이한진(李漢鎭)의 「속어부사(續漁父詞)」, 신재효(申在孝)의 「어부사」같은 작품의 창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조선 후기 문학사에서 「어부가」라는 하나의 작품 계열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현보의 국문시가 작품들이 영남의 후배들에게 국문시가의 필요성을 일깨워 줌으로써 이황에 의하여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창작으로 계승되고, 다시 이황의 제자인 권호문(權好文)의 「독락팔곡(獨樂八曲)」과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이숙량(李淑樑)의 「분천강호가(汾川江湖歌)」의 창작으로 이어져 내려가면서 국문학사에서 영남가단이라고 불리우는 국문시가 창작의 전통으로 확립되어, 송순 - 정철 - 윤선도로 이어지는 호남가단과 함께 조선후기 한국문학을 풍성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농암의 작품으로는 10 장으로 전해지던 「어부가(漁父歌)」를 장가 9 장, 단가 5 장으로 고쳐 지은 것이 『청구영언』에 전해지며, 「효빈가」,「농암가」,「어부가」,「생일가」등의 시조작품 8 수도 전해진다. 외손자 김계광(金啓光)이 간행한 『농암선생문집』에는 1 권에 한시로 오·칠언근체시 약 140 수가 있으며, 그 중에는 퇴계(退溪), 송재(松齋), 모재(慕齋), 사재(思齋), 황준량(黃俊良), 회재(晦齋) 등과의 화창이 있다. 또한 3 편의 부(賦)가 있으며, 2 권에는 퇴계와의 여답서가 실려 있다. 3 권은 잡저록으로 여러 문장들이 실려 있다.

<조사 : 20031125 배춘택>

3) 영남가단과 호남가단

16 세기 사림이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모두 동일한 정치적 위상과 철학적 입장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는 크게 영남사림(嶺南士林)과 호남사림(湖南士林)으로 나누어진다. 사림파는 자기 고장인 영남과 호남에서 시조를 키웠다. 시조는 서울에서 벼슬을 하는 생활에서보다 향리로 물러나 자연을 찾고 심성을 닦고자 할 때 스승과 제자, 동학과 벗이 화창을 하며 교류하는 데 더욱 긴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시조의 맥락이 면면하게 이어져 가단(歌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형성되었다.

영남가단은 시조를 지어 즐기는 풍류를 즐기되 도학하는 자세에 수렴되게 하여 선비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찾고자 했다. 그리하여 시조가 사림파의 문학으로 긴요한 구실을 하여 모범이 될 본보기를 이룩하도록 했다. 영남지방의 시조가 그런 기풍을 지니게 하는 데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현보이다. 반면에 송순이 처음 마련한 호남가단은 작품을 통해서 감회를 나타내는 데 치중했으며, 도리는 따지지 않은 채 풍류를 자랑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론을

따지기보다는 풍류 자체를 생활화 하는 것이 호남가단의 풍조였다.

영남사림은 이현보 → 이황(李滉) → 권호문(權好文)으로 그 계보가 이어지며, 중앙정계로의 진출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처사적 삶을 통해 자신의 이념적 순수성을 천명하려고 노력했다. 호남사림은 송순(宋純) → 이이(李珥) → 정철(鄭澈)로 이어지며, 영남사림들과는 달리 중앙정계로의 진출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처사적 삶도 그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 특징이다.

16 세기 사림의 정치적 위상은 '보수적 이상주의'와 '개혁적 현실주의'의 둘로 양분된다. 전자는 강호자연에서의 처사적 삶을 통해 획득한 심성수양의 내면적 완성을 도구로 삼아 그 이념적 순수성을 대외에 밝힘으로써, 혼탁한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적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후자는 강호자연에서의 처사적 삶을 혼탁한 정치현실의 개혁을 위해 힘을 기르는 준비과정으로 인식한다. 즉 호남사림은, 심성 수양의 내면적 완성을 중앙정계의 진출을 위한 하나의 훌륭한 발판으로 삼아, 자신들의 정치 개혁적 의지를 실질적으로 펼치고자 한다.

영남가단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는 이현보는 여러 인물들과 폭넓은 교류를 펼쳤다. 이현보의 스승은 문광공(文匡公) 홍귀달(洪貴達)(1438~1504)이었고, 24 세나 아래인 고향 후배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1491~1553)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김안국(金安國)(1478~1543)과는 막역지간이었고 주세붕(周世鵬) (1495~1554)과도 뱃놀이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함께 풍류를 즐기던 벗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손자사위였던 황준량(黃俊良)은 이현보의 제자였던 이황 아래에서 성리학 공부를 하였고, 어부가를 개작할 때, 어부가 두 편을 얻어다 주었다. 이황은 이현보의 제자이자 고향 후배로 가까운 곳에 살면서 많은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 어부가를 개작할 때에도 퇴계와 많은 의견 교류가 있었다. <농암집> 2 권에는 퇴계와의 여답서(與答書)의 주 내용이 실려 있다. 농암선생행장도 퇴계가 썼던 것으로 보아 농암과 퇴계 사이가 각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사 : 20051140 조혜근>

4) 감상 - 「농암가(聾岩歌)」, 「어부가(漁父歌)」

(1) 농암가(聾岩歌)」

농암의 작품으로는 10 장으로 전해지던 「어부가(漁父歌)」를 장가 9 장, 단가 5 장으로 고쳐지은 것이 『청구영언』에 전해지며, 「효빈가」,「농암가」,「어부가」,「생일가」등의 시조 작품 8 수도 전해진다. 외손자 김계광(金啓光)이 간행한 『농암선생문집』에는 1 권에 한시로 오・칠언근체시 약 140 수가 있으며, 그 중에는 퇴계(退溪), 송재(松齋), 모재(慕齋), 사재(思齋), 황준량(黃俊良), 회재(晦齋) 등과의 화창이 있다. 또한 3 편의 부(賦)가 있으며, 2 권에는 퇴계와의 여답서가 실려 있다. 3 권은 잡저록으로 여러 문장들이 실려 있다.

「농암가(聾岩歌)」

농암(聾岩)애 올라 보니 노안(老眼)이 유명(猶明)이로다.
(농암(바위이름)에 올라 보니 늙은 나의 눈이 오히려 더 밝아진 것 같다.)
인사(人事)이 변한들 산천(山川)이딴 가실가.
(사람의 사정이 변한들 산천이야 변하겠는가.)

암전(巖前)에 모수모구(某水某丘二) 어제 본듯 하예라.

(바위 앞에 있는 물과 언덕이 어제 본 듯이 변함없구나.)

「농암가」는 전원에 돌아와서 옛날의 놀던 자취가 변함없음을 기뻐하고, 자연의 항구성을 새로이 발견하는 깨우침을 읊은 노래이다. 초장은 '귀머거리 바위에 오르니 늙은 눈이 오히려 밝아진다.'라는 말은 귀먹은 바위에 눈 어두운 늙은이가 올랐으면 듣는 것과 보는 것이 흐릿할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는 역설적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옛적에 놀던 귀머거리 바위에 올라보니 늙은 눈에 옛날의 풍경이 역력히 되살아날 것이니 오히려 눈이 맑아진다는 것이 내면적 진실이다. 중장에는 인간사와 산천을 변하는 것과 변치않는 것으로 대조시켰다. 사람의 일, 특히 조정의 벼슬살이야 변화난측하고 험난한 것이지만 고향산천은 변함없이 편안한 곳이다. 종장에서 어린 날 자신이 놀던 물과 언덕의 이름들을 짚어보면서 자연의 항구성을 새삼 깨우치는 것이다.

(2) 「어부가(漁父歌)」

(1) 어부가의 계보

조선조 시가문학에 나타난 강호가도는 주로 당쟁에서 벗어나 강호에 귀거래(歸去來)한 양반들의 가어옹(假漁翁 : 가짜 어부라는 뜻으로, 속세를 떠나 강호에서 낚시하면서 시나 읊고 술잔을 기울이던 양반을 이르는 말)에 이룩된 문학이다. 귀거래는 조선양반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풍조였으며, 이 풍조는 동양적 은둔사상에 말미암기도 하거니와 당쟁이 심하던 조선의 정치여건이 그것을 필요로 하였다.

정치현실에서 물러나 고형으로 돌아온 양반들이 이룩한 강호가도의 전형적인 어부가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전승되어 왔다. 어부가에 대한 기록은 고려의 이제현이 정승이었던 구봉(龜峯) 김영돈(金永旽)을 애도한 시에서 처음 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익제의 시에서는 '장단일성어부가(腸斷一聲漁父歌)'라 하여 어부가의 명칭에 대한 기록일 뿐 어부가의 가사까지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현재 가사가 전하는 것 중 최고의 것은『악장가사』에 전하는 장가 12 장이며, 그 후 농암 이현보가 이를 「어부장가」9 장으로 개작하였고 또 가사가 전하지 않는 단가 10 장을 「어부단가」5 장으로 개작하여 전하고 있다.

이후 17 세기 중엽에 이르러 고산 윤선도가 「어부사시사」40 장을 창작하였으며, 수헌 이중경이 「오대어부가(五臺漁父歌)」20 장, 경산(京山) 이한진(李漢鎭)이 「속어부가(續漁父歌)」8 장을 창작하였다.

이 밖에도 연대와 작자 미상의 가사형식을 띤 「별어부가(別漁夫歌)」,「창랑곡(滄浪曲)」등이 있고 단가 형식을 띤 작품들도 있다.

(2) 이현보의 어부가

다음 글은 농암 이현보의 어부단가오장단가(漁父短歌五章短歌)의 전문이다.

「어부가(漁父歌)」

이듕에 시름업스니 漁父(어부)의 生涯(생애)이로다.

(이런 속에 근심 걱정할 것 없으니 어부의 생활이로다)

一葉片舟(일엽편주)를 萬頃波(만경파)에 워 두고,

(한 척의 조그마한 배를 끝없이 넓은 바다 위에 띄워 두고)

人世(인세)를 다 니젯거니 날 가 주를 알랴.

(인간 세상의 일을 다 잊었으니 세월 가는 줄을 모르겠도다)

구버 千尋綠水(천심녹수) 도라보니 萬疊靑山(만첩청산)

(아래로 굽어보니 천길이나 되는 깊고 푸른 물이며, 돌아보니 겹겹이 쌓인 푸른 산이로다)

十丈 紅塵(십장 홍진)이 언매나 폇 고,

(열 길이나 되는 속세의 붉은 먼지(어수선한 세상사)는 얼마나 가리어졌는가)

江湖(강호)애 月白(월백) 거든 더옥 無心(무심) 얘라.

(강호에 달이 밝으니 더욱 인간사에 욕심이 없어라)

靑荷(청하)애 바 고 綠柳(녹류)에 고기 여

(연잎에 밥을 싸고 버들가지에 잡을 물고기를 꿰어)

蘆荻花叢(노적 화총)에 야 두고

(갈대와 억새풀이 우거진 곳에 배를 대어 묶어 두니)

一般淸意味(일반청의미)를 어 부니 아 실고.

(이런 맑은 뜻으로 노는 흥을 어느 분이 아시겠는가)

山頭(산두)에 閑雲(한운)이 起(기) 고 水中(수중)에 白鷗(백구)이 飛(비)이라.

(산봉우리에 한가로운 구름이 피어나고 물 위에는 갈매기가 날고 있네)

無心(무심)코 多情(다정) 니 이 두 거시로다.

(아무런 사심 없이 다정한 것은 이 두 가지뿐이로다)

一生(일생)에 시르믈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한평생의 시름을 잊어버리고 너희들과 더불어 지내리라

長安(장안)을 도라보니 北闕(북궐)이 千里(천리)로다.

(서울을 돌아보니 궁궐이 천 리나 떨어져 있구나)

漁舟(어주)에 누어신 니즌 스치 이시랴.

(고깃배에 누워 있은들(나랏일을) 잊은 적이 있겠는가)

두어라, 내 시 아니라 濟世賢(제세현)이 업스랴.

(두어라. 내 걱정할 바가 아니로다. 세상을 구할 어진 사람이 없겠느냐)

생업을 떠나 자연을 벗하며 고기잡이 하는 풍류객으로서의 어부의 생활을 그린 이 작품은, 농암의 어부가를 보면 악산악수(樂山樂水)의 운치 있는 생활을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자연속에 묻혀 은일(隱逸)을 즐겼을망정 마음속에는 인간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니, '人世(인세)를 다니젯더니'와 '니즌 스치 이시랴'라 한 것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임금에 대한 충성을 표현한 것으로 애국 충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표현에서 농암이 도가적인 삶을 노래했어도 임금에 대한 충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에 농암의 어부가는 정경의 묘사나 생활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냄이 없이 '천심녹수(千尋綠水), 만첩청산(萬疊靑山)'과 같이 상투적인 용어를 구사하여 관념적으로 어부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후에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가 농암의 어부가를 보고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결점을 지녔으며, 정경의 묘사도 관념적이다'라고 하며「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를 새로 짓는다. 농암의「어부가」에는 풍류적인 모습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는 나라에 대한 걱정, 즉 시름을 발견할 수 있다. 이현보가 살았던 16 세기는 정치적으로 당쟁이 심했던 혼탁한 시대였다. 그래서 시적 자아는 강호에 있으면서도 정치 현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안주할 수 없었기에, 강호의 삶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경우에도 지나친 자연미에 대한 탄상이나 감흥은 스스로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서는, 강호가도를 노래하고만 있지 농암의 「어부가」처럼 현실에 대한 시름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윤선도가 살았던 시기는 임병양란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사회였지만, 그의 시조에는 전쟁의 상처나 왜적이나 호적에 대한 적개심 따위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하지만 풍류와 흥취를 강조하는 그의 시조들은 표현의 묘미를 한껏 살린 사대부시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가진 작품이란 평을 듣는다.

<조사 : 20051109 김인혜>

5) 관련 유적

(1) 농암사당

규모는 앞면 3 칸·옆면 3 칸이고, 지붕은 옆면이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이다. 이 건물은 조선(朝鮮) 중기(中期)의 학자(學者)인 농암 이현보(李賢輔)(1467~1555) 선생의 신위(神位)를 봉안(奉安)한 사당으로 분강서원(汾江書院)에 딸린 건물이다. 정면 3 칸, 측면 3 칸의 홑처마 맞배집으로 네모기둥에 납도리 오량가구(五樑架構)인데 종도리를 받친 대공(臺工)은 독락당(獨樂堂)의 대공과 흡사하다. 원래는 안동군(安東郡) 도산면(陶山面) 분천동(汾川洞)에 위치하였으나 안동댐 수몰로 1975 년 이건(移建)하였다.

(2) 애일당

1973 년 8 월 31 일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 34 호로 지정되었다. 조선 중종 때의 문신이며 학자 농암(聾岩) 이현보(李賢輔)의 별당이다. 1512 년(중종 7) 이현보의 나이 46 세 때 부모를 위하여 분강(汾江) 기슭의 농암(聾巖:귀먹은 바위) 위에 처음 지었으며, 1548 년(명종 3)에 중창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조선 후기에 다시 세운 것이다.

정면 4 칸, 측면 2 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전열칸은 2 중보를 걸었으며, 보는 홍예보이고 그 위에 포대공(包臺工)을 세웠다. 툇보에도 홍예가 보인다. 가구(架構)으로 보아 구형(舊形)을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현보가 이 당을 짓고 나이 90 세를 넘긴 노부의 늙어감을 아 쉬워하여 하루하루를 아낀다는 뜻에서 당호(堂號)를 애일당(愛日堂)이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원래 낙동강 연안의 분천리에 있었는데, 안동댐 건설로 수몰되어 1975 년 원래의 위치에서 서쪽으로 1km 쯤 떨어진 영지산(靈芝山:436m) 남쪽 기슭으로 이건하여 보존하고 있다.

(3) 농암종택

농암종택은 농암선생이 태어나고 성장한 집이며, 직계자손들이 650 여년을 대(代)를 이어 살아오고 있는 집이다. 최초 이 집을 지은 분은 영천이씨 안동입향시조 이헌(李軒)으로, 선

생의 고조부이다. 자손들은 지금 이분으로부터는 23 세손, 선생으로부터는 18 세손까지 내려왔다. 농암선생이 '불천위(不遷位)'로 모셔졌기에 '농암종택'으로 부른다.

종택은 2,000 여 평의 대지 위에 사당, 안채, 사랑채, 별채, 문간채로 구성된 본채와 긍구당, 명농당 등의 별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구당(肯構堂)'은 1350 년 이헌이 지은 건물이며, '명농당(明農堂)'은 1501 년 선생 나이 44 세 때 귀거래(歸去來)의 의지를 표방하고 지은 집으로, 벽 위에 '귀거래도(歸去來圖)'를 그렸다.

<조사 : 20081103 곽현진, 20081125 우상진>

<참고>

http://www.reportg.com/search/view.php?rpID=106344

http://person.mct.go.kr/person/data/person_view.jsp?cp_seq=125

http://www.nongam.com/

<한국문학탐방 4 조>

조 지 훈

목 차

1. 조지훈의 생애

2. 조지훈의 시세계

3. 조지훈의 승무

4. 낙화(落花)의 이해

5. 조지훈 관련 유적

※. 조지훈 연보

20021149 윤수진
20051108 김은희
20051143 홍복정
20081108 김선미
20081122 신이슬
20081133 임명철

Ⅰ. 조지훈의 생애

20081133 임 명 철

1920 년 조지훈은 12 월 3 일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곡동 202 번지에서 아버지 조헌영과 어머니 전주이씨 사이에서 4 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조부 인석은 한학에 조예가 깊은 천석꾼의 부호였고 학식이 높은 선비집안이었다. 부친은 일본 동경에 유학하여 신문화를 접한 지식인이었으나, 조지훈은 조부의 뜻에 따라 보통학교를 3 년간 다닌 것을 제외하고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고향에서 한학을 습득하며 성장하였다. 이처럼 선비 지사인 조부 밑에서 한학을 연마하게 된 것이 그의 인격 형성이나 학문의 향방에 큰 영향을 주었고 또한 동양적 교양의 시풍을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 그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1936 년 그는 조부의 곁을 떠나 상경하여 새로운 문물을 접하게 된다. 18 세에 서울로 상경해 한용운을 만난 후부터 지조를 목숨처럼 중하게 여기게 된 조지훈은, 동향의 선배 시인 오일도의 시원사에 머물면서 시를 습작하는 한편 보들레르, 도스토예프스키, 오스카 와일드 등 서구 문학에 심취하기도 하였다.

그는 1939 년에 독학으로 혜화전문에 입학하고, 그해 정지용의 추천으로 문장 지를 통해 <고풍의상>과 <승무>, 이듬해에 <봉황수> 및 <향문>을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데뷔하였다 이 네 편은 한결같이 회고적 정신을 전아한 언어와 정조로 노래하고 있어 이때 이미 시인으로서 조지훈의 이미지를 고정시켰다. 1941 년 혜화전문을 졸업한 조지훈은 일제의 횡포를 피해 오대산 일대에서 은거하여 작품 활동을 하였다. 오대산에 은거하면서 불교사상과 노장사상 등을 읽으며 자연의 서경과 선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갖지만 일제의 횡포에 통분하여 통음한 결과 건강을 상하게 되어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 서울로 올라온 조지훈은 1942 년 3 월부터 조선어학회의 <큰 사전>편찬에 참여하다가 1942 년 8 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검거된 뒤 풀려난 후 일제의 감시와 세태의 절망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해방 후 다시 서울로 올라온 조지훈은 고전적 풍물을 소재로 하여 우아하고 섬세하게 민족정서를 노래한 시풍으로 기대를 모았다. 1946 년 박두진, 박목월과 함께 시집 청록집 을 간행하여 '청록파'라 불리게 되었다. 1947 년 2 월,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 결성에 중앙상임위원으로 참여한다. 1952 년에 시집 풀잎 단장 , 1956 년 조지훈시선 을 간행했으나 자유당 정권 말기에는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되어 민권수호국민총연맹, 공명선거추진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했다. 4.19 혁명 당시 교수 시위단으로 활동하는데, 이 무렵에 쓰인 그의 작품들은 시집 <역사 앞에서>와 수필 <지조론>등이다.

조지훈은 1960 년, 한국교수협회 중앙위원, 1962 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소장에 취임하여 한국문화사대계를 기획, 한국문화사서설, 신라가요연구논고, 한국민족운동사 등의 논저를 남기는 등 엄청난 활동을 하였지만, 이 방대한 기획을 완성하지 못한 채 1968 년 5 월 17 일 사망 하게 되었다.

Ⅱ. 조지훈 시세계

20051143 홍 복 정

조지훈(趙芝薰, 1920-1968)은 1939 년 『문장(文章)』지에 「고풍의상(古風衣裳)」을 시작으로 그해 12 월에 다시 「승무(僧舞)」로 2 번째 추천을 받고, 다음 해에 「봉황수(鳳凰

愁)」와 「향문(香紋)」을 추천받으며 시단에 등장한다. 그는 전통적 서정성을 현대시에 계승, 발전시킨 대표적인 시인의 한 사람으로 시의 제재와 주제, 그리고 형식과 언어에서 전통성이 드러냈다. 그러나 조지훈이 처음부터 전통지향적인 시세계를 보였던 것은 아니다. 그의 시세계는 습작기(1936-1939)의 서구지향성에서 『문장』 추천 이후의 전통지향성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세계의 변화는 그의 생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 특성에 따라 6 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 기(1930-1939)는 문학수업(1930-1936)과 습작기(1936-1939)나눌 수 있다. 문학수업 시절 조지훈은 유교적 전통교육을 받으며 성장한다. 또한 메테를링크, 배리, 와일드를 읽으며 문학에 대한 기초적 소양을 쌓아갔다. 이러한 준비단계를 거친 후, 습작기로 들어선 조지훈은 유교적 정신적 체험과 서구적 문학적 체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그는 당시 시단을 풍미한 서구시를 따르며 심미주의(審美主義)와 모더니즘 경향을 시를 선보였다.

제 2 기(1939-1940)에 조지훈은 신교육 및 불교교육을 통해 자아를 찾는 시기이며, 조부 조인석(趙寅錫)을 떠나 혜화전문학교(惠化專門學校)에서 현대식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문장』에 시 추천을 받아 시단에 데뷔하게 된다. 그는 이전의 서구지향성을 버리고 민족문화와 민속과 역사를 바탕으로 전통적 서정시를 지향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직 기법과 시의 형태면에서는 기교주의(技巧主義)나 산문시형(散文詩形)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대 서구시의 특성을 그대로 보인다.

제 3 기(1941.4-1941.12)에 조지훈은 학업을 끝내고 월정사강원(月精射講院) 생활하며 시인으로서 가장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문장』 추천시가 보여준 전통 지향적 경향에서 순수서정시로 전환된 중요한 시기로 관조적(觀照的), 선적(禪的)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문학세계가 절정을 이룬다. 그가 주장한 시의 순수 서정성과 전통 민족문학의 건설이라는 문학관을 이 시기의 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제의 식민지 탄압이 극한에 이르렀던 제 4 기(1942-1945)에는 민족말살정책으로 말과 글을 빼앗긴다. 친일문학이냐 저항문학이냐 소극적 은둔문학이냐라는 문제에 봉착한 대다수의 문인들은 친일문학을 택하지만 조지훈은 후자를 택한다. 이렇듯 냉혹한 현실에 부딪친 그의 자아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며 방랑과 향수와 기다림의 정서가 시로 표출된다.

제 5 기(1945-1959)는 1950 년대로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민족문학과 프로문학의 이데올로기적 투쟁과 분열, 6·25 전쟁, 자유·민주에 반하는 정치·사회적 모순 등으로 끊임없는 혼란이 이어진다. 결국 조지훈과 현실사회와의 만남은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 의욕과 갈등이 교차하는 이원적(二元的)인 대립상을 보여주며 그는 그 속에서 부단한 자아 탐구의 자세를 시로 형성화해낸다.

제 6 기(1959-1968)는 1960 년대의 사회적 격동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조지훈은 정치적·사회적 모순과 비리 속에서 외롭게 지절(志節)을 지키며 세계에 대한 인식의 대상을 인간에서 역사의식으로 바꾼다. 이러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선 저항 정신을 시를 통해 형상화시켰다. 또한 시집『여운(餘韻)』을 통해 자신의 시 인생을 정리하며 관조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심미·자연·불교·선·역사·자아의 세계를 성찰하는 자세로 시집을 내보낸 것이다. 이

시집에는 자신이 탐구해온 자아의 참모습을 발견하려는 자세가 결집되어 있다.

<참고>
서익환, 『조지훈의 시 연구·』(우리문학, 1991)

Ⅲ. 조지훈의 승무

20081108 김 선 미

승무는 현대, 서정시, 자유시, 종교적(불교적)으로 볼 수 있으며, 미에 대한 탐구인 탐미적, 미에 심취하는 심미적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양적 신비를 띄며, 주제로는 세속적 번뇌(고뇌)에 종교적 승화가 될 수 있다. 승무란 장삼을 입고 고깔을 쓰고 법고에 맞춰 추는 춤으로 이 춤은 본래 불교의식을 위한 춤이 아니라 산대잡희(=산대놀음)에서 시작했다.

본문의 내용 파악으로 넘어가서 첫 연과 마지막 연에 나오는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대목은 수미상관(=수미상응)이 되는데 시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 뜻풀이로는 얇은 비단으로 곱게 접어 만든 하얀 고깔은 나비 같구나로 해석되며 두 번째 연의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대목은 두 볼에 흐르는 빛이 너무나도 고와서 오히려 서럽구나 이며 역설적 표현이다. 역설법이란 언뜻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자세히 보면 진리가 숨어 있음 알 수 있다. 화자는 젊고 아름다운 여승이 중이 되었다는 사실을 역설한 것이다.

시간과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는 삼연을 지나서 사연은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이 접어올린 외씬보선이여! 라는 글에서 외씨보선은 불이 조붓하고 갸름하여 신으면 맵시 나는 버선으로 이것은 한국적 선의 미를 나타 내여 은근함 안정적 여유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6 연에서 세상사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는 글인데 이 글에서 세속의 번뇌를 초탈하고자 하는 염원이 '별빛'이라는 시어 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번뇌는 별빛이라는 구체적으로 번뇌의 종교적 승화 즉, 주제의식이 되는 주제연이 되겠다.

연으로 정리해서 간단히 보면 2 연에는 춤추기 직전의 모습이 3 연에서는 승무의 배경이 달밤인 것을 알 수 있으며 4 연은 급박한 가락에 따른 춤동작을 잘 표현하였다.

이어서 5 연은 명상을 하며 정지된 모습과 6 연에서 번뇌의 종교적 승화 7 연에서는 유장한 가락에 따른 춤동작을 읽을 수 있다.밤 11~1 시를 나타내는 삼경이 나오는 마지막 구절에서는 춤의 종료를 나타낸다.

'승무'는 지상의 번뇌를 천상의 별로 승화시키기 위한 대비, 잘 다음어진 전아한 시어, 그윽한 분위기 묘사와 더불어 우리말만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형용사와 부드러운 어미를 활용함으로써 음악성과 회화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시적허용으로 한국문학의 아름다움을 빛나게 하는데, 하이얀, 감추오고, 모두오고, 감기우고를 볼 수 있다. 이 시적허용으로 승무는 색채감이나 예스럽고 부드러우며 여성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한층 더 돋보이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승무'는 조지훈의 초기 시 가운데에 대표적이며 승무는 온갖 애욕과 갈등 번뇌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중심 매개체이다. 화자가 춤추는 여승을 바라보며 화자는 여승의 춤을 단순히 춤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번민과 고뇌를 극복하고,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본다. 그러므로 화자는 춤추는 여승을 바라보며 여승의 내면, 고뇌까지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참고>
「문학」 금성출판사

Ⅳ. 낙화(落花)의 이해

20081122 신 이 슬

낙화(落花) -조지훈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랴

주렴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스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머언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닫이가
우련 붉어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허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낙화는 1956 년 조지훈 시선 에 수록되었다. 일제 말 조지훈이 감시망을 피해 강원도로 피신해 있을 때 쓴 시이다. 조지훈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여 허무한 삶의 애상과 비애를 노래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꽃이 떨어지는 자연의 섭리를 담담하고 나지막한 어조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2 행을 1 연으로 한 총 9 연의 자유시이며 비유적이기보다는 묘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3 연까지는 4 음보 격이지만 나머지 연은 3 음보격인 특징을 볼 수 있다.

이 시에서 꽃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순응하고자한다. 2,3 연은 시간적 배경으로 새벽이 가까워짐을 나타내고 있으며, 3 연에서 귀촉도는 슬픔과 한, 비장함을 포함하고 있다. 1~3 연은 다시 말해 꽃이 지는 서글픔을 표현하고 있다.

4 연은 화자의 서글픔과 시간 흐름을 나타내며 자신 역시 어둠을 마주하여 있고자 하는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꽃이 지는 그림자를 보려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이기도 하다. 우련은 마지막 아름다움 즉 쓸쓸함과 서글픔의 감정을 나타낸다. 여기까지가 낙화의 모습이며 배경에 속한다. 낙화의 서글픔 속에서 아름다움이 엿보인다.

7 연부터는 화자의 감정이 표현되는데 '묻혀서 사는 이' 즉 자신이 세상을 피해 꽃과 같이 묻혀서 살며 화자의 쓸쓸한 삶과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9 연에서 울고 싶어라는 화자의 심정을 아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의 배경은 밤에서 아침으로 이동되고 있으며 밤은 서글픔 속에서 낙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아침은 아름다움에 덧없음과 자신의 참을 수 없는 삶의 비애를 나타낸다. 이 시의 주제는 사라지는 아름다움에서 느끼는 사람의 비애이다.

<참고자료>

이문수의 국어사랑

http://munsu.new21.org/php/board.php?board=modern&command=body&no=1309&search=%B3%AB%C8%AD&shwhere=subject

V.조지훈 관련 유적

20021149 윤 수 진
20051108 김 은 희

1. 주실마을

이 마을에는 우물이 없다. 주실은 배 모양의 형국이므로 우물을 파거나 지하수를 파면 배가 가라앉는다고 하여 우물을 파면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주실마을이 있는 영양은 본래 고구려에 속해 있다가 신라에 병합됨에 따라 고은현(古隱縣)이 설치됨으로서 비롯되었다. 757 년(경덕왕 16 년)에 유린현(영해)의 영현이 되었는데, 오늘날 영양군의 행정구역인 청기면.영양읍 일대는 명주(溟州)에, 일월면.수비면 일대는 양주(良州)에 분할소속되어 있었 다. 고은현은 940 년(태조 23 년)에 영양군으로 개명되어 청기현과 함께 1018 년(현종 9 년)에 예주(禮州)의 속읍이 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대청부곡(大靑部曲)과 소청부곡(小靑部曲)이 합하여져서 1304 년(충렬왕 30 년)에 청기현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2. 조지훈 생가 - 호은종택

경상북도 기념물 제 78 호로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201 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집은 주곡 마을에 처음 들어온 입향조(入鄕祖)[13] 조전(趙佺) 둘째 아들 조정형이 조선 인조 때 지은 것이고 주실 조씨(趙氏)들의 시조이다. 6.25 전쟁 때 일부 소실된 것을 1963 년 복

13) 마을에 맨 처음 들어와 터를 잡은 사람 또는 그 조상.

구하였는데, 안채에 유리문을 다는 등 다소 변형된 부분도 있다. 경북지방 주택의 전형적인 'ㅁ' 자형을 취하고 있으며 정면-측면 모두 7 칸으로, 정면의 사랑채는 정자(亭子)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채와 붙어있다. 서측 1 칸에는 조지훈의 태실이 있다.

2-1. 조지훈의 생가 - 호은종택에 대한 전설

호은공이 인조 7 년 1629 년 주실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호은종택이 자리한 지맥은 영양 지방의 명산인 일월산에서 흘러 내려온 맥이다. 주실에서 일월산까지 능선을 타고 오르면 12km 정도 소요되는데 주실에 도달한 지맥은 야트막한 세 개의 봉우리로 응결된다. 그 가운데 봉우리에 호은종택이 있다. 이 집안의 전설을 살펴보면 호은공이 매방산에서 매를 날려 매가 내려앉은 곳에 집터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곳은 평지나 언덕이 아닌 늪지로 산사람이 거주하는 양택을 늪지로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호는 호리병을 말한다. 호은이란 호리병을 가지고 숨었다는 말이다. 호은종택의 대문을 등지고 정면을 바라보면 눈이 부시는 봉우리가 하나 있다. 바로 문필봉이다. 집터나 묘터의 정면에 위치한 산을 안산이라고 하는데, 이 문필봉은 호은종택의 안산에 해당된다. 이 봉우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문필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풍수에서 말하는 대문과 일직선상이다. 삼각형의 산은 오행 중에서 목형의 산이라고 하는데 풍수에서 이런 산이 정면에 있으면 공부 잘 하는 학자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

3. 지훈 문학관

지훈 문학관은 2007 년 5 월 18 일 개관 국가보조금과 군비로서 건립하였고 운영도 군에서 하고 있다. 170 여 평 규모에 'ㅁ'자 모양의 단층 목조 기와집으로, 입구에 조지훈의 미망인 김난희가 쓴 현판이 있다. 조지훈의 어린 시절 자료들과 청록집 관련 자료들, 그의 가족이야기, 그가 사용한 물품들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문학관에 들어서면 대표적 작품 '승무'가 흘러나오고, 문학관을 돌아 나오기 전 헤드폰을 통해서 투병 중인 그가 여동생과 함께 낭송했다는 시 '낙화'를 들을 수 있다.

4. 지훈 시공원

호은종택에서 지훈 문학관 가는 길에 지훈 시공원이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길가로 그의 시 가운데 골라 뽑은 20 여 편의 시비(詩碑)가 세워져 있고, 조각 작품과 어우러진 '승무' '낙화'등의 시비도 세워져 있으며, 조지훈의 동상과 쉼터, 공연장등이 안에 있다.

<참고자료>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영양 주실 마을』(예문서원, 2001)
조지훈 문학관 http://jihun.yyg.go.kr

※. 조지훈 연보

1920 경북 영양 출생
1939 <古風衣裳> <僧舞> <鳳凰愁> 등이 정 지용에 의해 문장 에 추천되어 등단
1941 혜화전문 문과 졸업. 오대산 월정사 불교강원 외전 강사

1946 박 두진, 박 목월과 함께 청록집 간행
1948 고대 문과대 교수
1952 첫시집 풀잎斷章 (청조사) 간행
1953 평론집 시와 인생 (박영사) 간행. 평론집 시의 원리 (산호장) 간행
1956 시집 조지훈시선 (정음사) 간행. 자유문학상 수상
1959 시집 歷史 앞에서 (신구문화사) 간행.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초대소장
1962 수상집 지조론 (삼중당) 간행
1964 시집 여운 (일조각) 간행. 수필집 돌의 미학 (고대출판부) 간행. 평론집 한국문화사 서설 (탐구당) 간행
1967 한국시인협회 회장
1968 사망
1973 조지훈전집 (일지사) 전 7 권 간행

<한국문학탐방 5 조>

이문열의 문학 세계

목 차

<작가 연보>

<이문열의 작품과 세계관>

<시대적 배경과 고향>

20021170 정한별
20061108 김은경
20081112 김춘기
20081124 심보선
20081146 홍초록

< 작가 연보 >

20081124 심보선
20081146 홍초록

1. 이문열의 삶

이문열 (李文烈, 1948 년 5 월 18 일~) 서울 청운동에서 출생하였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아버지가 월북하여 외가인 경북 영천에 내려가 잠시 머물다가, 조상 대대로의 고향인 경북 영양으로 돌아가는 등 수차례 이사하며 순탄치 않은 유년기를 보낸다. 하지만 이때의 경험 이 그의 작품에 많은 모티브로 적용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고교를 중퇴하고, 대입 검정고시 에 합격하여 작가의 꿈을 안고 문학회에서 활동하였다. 대학을 중퇴한 뒤, 고시와 문단 등단 에 실패하고, 군에 입대하였다. 제대 후 1977 년 단편「나자레를 아십니까」가 대구 매일신 문 신춘문예에 가작으로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등단 이후 오늘의 작가상, 동인문학상, 이상 문학상, 현대문학상 등의 무게 있는 상을 일찍이 받았으며, 그의 주요 작품들 가운데 상당수 가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어 문학 전문가 및 일반 독자에게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들로 우리 시대의 한국 소설을 대표하는 대형 작가중 한 사람으로 평을 받고 있다.

2. 연보

1948 년 서울 청운동에서 아버지 이원철과 어머니 조남현 사이 3 남 2 녀 중 3 남으로 출생. 본명은 이열.
1950 년 공산주의자인 부친은 월북하고, 모친과 5 남매가 외가인 경상북도 영천군 금호면 섬돌에 잠시
머물다, 친가의 고향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동으로 이사.
1953 년 경상북도 안동읍으로 이사하여 중앙국민학교에 입학.
1957 년 서울로 이사하여 종암국민학교로 전학.
1958 년 경상남도 밀양읍으로 이사하여 밀양국민학교로 전학.
1961 년 밀양초등학교 졸업 후, 밀양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6 개월만에 그만두고 석보면 원리동으로 이
사. 이후 3 년간 집안의 농사일에 매진.
1964 년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안동고등학교에 입학.
1965 년 안동고등학교 중퇴후 부산으로 이사하여 3 년간 특이사항 없이 소일함.
1968 년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서울대학교 사법대학 국어교육학과에 입학.
1969 년 학내 문학회에 가입하여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는 한편 사법고시 준비.
1970 년 대학교 중퇴 후 사법고시에 전념.
1973 년 사법고시에 연이은 실패 후, 박필순과 결혼한 뒤 군입대.
1976 년 제대 후 석보면 원리동으로 돌아갔으나 곧 바로 대구로 나와 생활.
1977 년 대구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나자레를 아십니까」가작 당선.
1979 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새하곡」당선. 장편『사람의 아들』로 제 3 회 <오늘의 작가

상> 수상.
1982 년「금시조」로 제 15 회 <동인문학상> 수상.
1983 년『황제를 위하여』로 제 3 회 <대한민국문학상> 수상.
1984 년『영웅시대』로 제 11 회 <중앙문화대상> 수상.
1987 년「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제 11 회 <이상문학상> 수상.
1992 년「시인과 도둑」으로 제 37 회 <현대문학상> 수상. 제 24 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훈장 수훈장> 수상.
1998 년「전야, 혹은 시대의 마지막 밤」으로 제 2 회 <21 세기 문학상> 수상.
1999 년『변경』으로 제 9 회 <호암예술상> 수상.
2001 년 문학 연구와 문학도 양성을 위해 광산문학연구소 개원.

<참고>
이태동, 『이문열』(서강대학교, 1996).
<네이버> 지식검색

< 이문열의 작품과 세계관 >

20061108 김은경

본문에서는 이문열의 주목되는 작품들에 보이는 소설적 특징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면서 수록작품들에 관하여서도 접해보려 한다.

1. 인물

이문열 작가의 작품들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들은 크게 두 층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층은 문제의식을 안고 있는 현실에 고뇌하고 비판적 사고를 지닌 지식인층이 있고 또 다른 층으로는 심히 왜곡됐거나 소외된 층으로서, 시대의 변천에서 따돌려진 장인들이나 혹은 스스로 쌓아올린 이기주의의 테두리 안에 갇힌 소시민들로 대표되는 경우가 많다. 또는 격동기에 삶을 빼앗긴 보통 사람들을 통해선 그들의 정신적 방황과 공포의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혹은 겉으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안으로는 자기기만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모순적인 인물들도 있다.

작가는 이러한 인물들이 현실과 대결하며 맞이하는 장엄한 비극미를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다. 이것은 인간이 극한상황에서 인간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현실과 대결하는 데서 오는 비극적인 현상에서 연유한 것이다.

2. 작품에 내포되어 있는 세계관

대체적으로 그의 작품은 낭만적인 세계 인식과 예술관에서 출발하며 작품 속 대사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 신과 자유의 문제에 관한 질문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면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의 밑바탕에 잠재된 의식은 소멸해 가는 것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강하다.

하지만 그는 무거운 소재와 작품을 채택해 오랫동안 외면됐던 인간의 자아와 존재에 관한

문제들에, 그만의 독특하고 탁월한 문장으로 부각시켜 양지로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그의 작품은 다소 어두운 작가의 세계관과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양의 작품을 통해 독자를 끌어들여 기성 문단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점, 그리고 그가 추가한 작품세계가 어두웠던 80 년대에 그 당시 작가들의 의식세계를 지배해 왔던 이데올로기 중심의 리얼리즘 세계에서 벗어나 실존적인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깊이 다루고 있기에 사이에 논란의 대상이지만, 이러한 문학적 특성이 이렇게 그만의 새로운 전기적 지평을 여는 가능성이 되고 있기도 하다.

3. 이문열의 영웅주의

이문열의 『영웅시대』,『황제를 위하여』를 통해 구현된 영웅주의는 부조리한 영웅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대응이 없는 한 영웅시대란 이름은 완전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그 요구기상황에 부응한 영웅의 출현을 기다려야 그 시대는 완성되는 것이다>

-『영웅시대』주인공 노트 글 中-

이처럼 비극적인 패배에 대한 낙관주의 주인공(영웅)들의 의식 속에 인간은 세계질서에 도전할 충분한 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극적 숙명이 사실은 인간의 존재가 세계의 횡포에 의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영웅의 자기 확신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부조리한 영웅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작가는 이렇게 소설적 영웅의 인식으로 인간이 세계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작가는 영웅이 직면하는 세계와의 괴리와 어긋남이라는 숙명을 작품 속에 그려 넣어 인간이 더 이상 의미 없는 현실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을 말하고 있다.

4. 나가며

이문열은 우리 문학에서는 드물게 인간의 내면성을 깊이 응시하고 표현하는 작가이다. 그의 초기 작품들에 낭만주의적 성향이 짙은 것도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폭 넓은 교양체험과 역량으로 독자들 또한 강한 교양 체험을 하도록 작품을 통해 전달해주고 있다. 이렇게 내면성의 문학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교양 체험의 매력은 독자들이 그의 작품 세계에 매료되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

<참고>

김윤식 외, 『이문열 론』(삼인행, 1991).
이남호, 『이문열 문학앨범』(웅진, 1994).
이태동, 『이문열』(서강대학교, 1996).

< 시대적 배경과 고향 >

20021170 정한별
20081112 김춘기

1. 시대적 배경

이문열은 「새하곡」으로 등단하여 그해 여름 「사람의 아들」로 많은 평론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한 그 해가 가기 전 「들소」, 「그해 겨울」등의 무게감 있는 작품을 잇달아 발표하여 그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철저히 준비된 작가적 역량에서 비롯된 것임을 스스로 자명하였다.

그러면 이문열이 등단 첫해에 보여준 이 성과물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풀기 위해 먼저 1970 년대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되짚어 그 시대 문학의 전반적 성격과 문제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국의 70 년대는 유신독재라는 우울한 시대로 기억되며, 더불어 더없이 강력한 철권통치 아래 대대적인 산업화의 물결과 맞물려 '민중'의 존재가 거세게 솟아오르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문학도 그 흐름 속에 유신독재의 비판의식과 민중의 존재와 사회적 상상력을 한껏 드러내는 작품들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이 바람직한 이 흐름이 오랜 기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지속되다 보니, 문학적 균형의 회복 차원에서 다른 방향의 작업도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초월적이거나 내면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는 작품들을 출현시킨 것이 이문열의 첫 성과였다. 특히 등단 첫해에 선보인 네 작품 중「그해 겨울」은 이전 세 작품에 비해 결코 덜하지 않은 무게감을 지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시각에서 직접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요소가 없으면서도 예술지상주의란 이름에 걸맞은 색채가 진하여 취향의 차이를 떠나 이 젊은 작가에게 확고한 문학사적 위치를 매겨준 것이다.

2. 이문열에게 있어 고향이란

위에서 확인했듯 이문열은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70 년대에서 유신독재와 산업화 바람, 민중의 부각 등을 겪어 왔으나 분명한 그만의 개성을 띄고 있다. 이에 대한 뿌리는 그의 작품집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작품은 작가 자신의 고향인 경북 영양군 석보면에 초점을 맞추고 그 고향의 전통을 형성했던 뭇 요소들이 근대화의 물결에 떠밀려 사라지고 있어 안타까움에 집필한 것이다. 본 작품의 문면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는 이문열이 말하는 고향의 세계란 철저한 양반 이념의 사회로, 그 이념을 찬양하며 쇠락을 아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문열의 개성을 자리 잡게 한 깊은 뿌리에는 옛것에 대한 향수와 상고주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양반 중심, 특히 엘리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으나 후에 발표하는 『젊은 날의 초상』에서 고향의 이야기가 낭만주의적 초점으로 풀어져 있어 그 시야를 넓혀놓기도 하였다. 특히 본 작의 제 1 부 「하구」에 등장하는 김병연의 평설에선 이문열 자신의 유소년 체험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특히 거주지의 빈번한 변경과 모친에 대한 기억, 출세를 위해 노력한 이야기들은 작가 본인의 경험임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때로는 자연 환경이 소설 내에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젊은 날의 초상』의 주인공 영훈이 영덕군 창수면에서 영양으로 넘어가는 장면에서 창수령 고개가 등장하여 그 빼어난 절경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의 소설 『선택』에선 두들마을을 배경으로 내세웠다.

이렇듯 작품들을 통해 그의 정신과 세계관 형성의 기저에는 그 형태가 직접적, 혹은 간접

적이든 고향에 관한 강한 애수가 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유년 시절을 이해하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도움과 재미를 주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김윤식 외, 『이문열 론』(삼인행, 1991).
김욱동, 『이문열: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의 문학』(민음사, 1994).
강준만, 『이문열과 김용옥: 문화특권주의와 지식폭력』(인물과 사상사, 2001).

<한국문학탐방 6 조>

현진건 무영탑

목 차

1. 연보

2. 작가의 생애와 문학관
① 현진건의 생애
② 현진건의 문학관

3. 소설 무영탑 작품 설명

4. 소설 무영탑 과 불국사

20031111 김응기
20067102 정길연
20081110 김정은
20081139 주선률

1. 작가 연보

1900 년 - 호는 빙허(憑虛). 구한말 8 월 9 일 대구 우체국장을 지낸 현경운과 이정효 사이에 넷째 아들로 태어남
1910 년 - 생모를 여읨.
1912 년 - 13 세의 나이로 일본 세이조중학에 입학
1915 년 - 한국으로 돌아와 이순득과 혼인
1917 년 -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세이조중학 졸업. 중국 상해 호강대학 독일어 전문부 입학
1919 년 - 호강대학에서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
1920 년대- 홍사용, 이상화, 박종화 등과 함께 <백조> 창간동인으로써 신문학운동에 참여
1920 년 - <개벽>에 「희생화」를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등장
1921 년 - 「빈처」를 발표하면서 인정받기 시작함. 조선일보 입사. 「술 권하는 사회」등 발표
1922 년 - 동명사 입사. <백조> 동인으로서 「타락자」, 「유린」 등 발표
1923 년 - 「할머니의 죽음」 등 발표
1924 년 - 「운수 좋은 날」, 「까막잡기」, 「그리운 흘긴 눈」등의 단편소설과 「악마와 까치」, 「지새는 안개」 등을 발표
1925 년 - 시대일보 폐간. 매일신보의 기자로 일함. 동아일보사로 옮김. 「불」, 「B 사감과 러브레터」등을 발표
1926 년 - 「조선의 얼굴」, 「고향」, 「사립정신병원장」 등을 발표
1927 년 - 「해 뜨는 지평선」 등 발표
1932 년 - 독립운동가인 형 '정건'이 죽음. 이듬해 형수의 자살
1935 년 - 동아일보 사회부장으로 일하다가 손기정 일장기 말살사건으로 1 년간 복역
1937 년 - 동아일보 사회부장 사임. 소설 창작에 전념
1938~41 년 - 「무영탑」(38~39 년), 「흑치상지」(미완,39~40), 「선화공주」(미완)(41), 「적도」(39) 발표
1943 년 - 결핵으로 그 생을 마감.

-20081139 주선률

2. 작가 연구

① 생애

현진건은 1900 년 음력 8 월 9 일 아버지 현경운(玄擎運)과 어머니 이정효(李貞孝)의 막내아들로 대구에서 태어났다. 원래 서울의 중인집안 출신인 그가 대구에서 태어난 연유는 그의 아버지의 직장관계였다. 흔히 그의 아버지는 대구 우체국장을 지냈다고 하는데 현재 이를 증빙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

현진건의 가계는 구한말 정치적 상승을 이룩한 중인출신 이었으며, 중인 가운데서도 역관 집안이었다. 그의 작은 아버지 현영운(玄暎運)은 구한말의 대표적 친일파의 하나로 고종 때 역관 중에서도 높은 고관의 위치까지 오른다. 양부(養父) 현보운(玄普運)은 관립일어학교 출신으로 현영운과 마찬가지로 역관이었고, 재종(再從)[14] 현상건(玄尙建)도 집안 사람들처럼 외국어 계통으로 관직에 나가지만 친일파인 현영운과는 대조적으로 친로반일파였으며 후에

14) (再從): 육촌이 되는관계.

예식원[15] 외무과장이 되어 대한제국의 몰락을 외교적 차원에서 막으려 애쓴다.

그는 어머니를 11 살 때 잃었다(1910). 그는 모성의 보호를 일찍이 상실하고, 어머니라고 할 수 없는 젊은 계모 밑에서 성장했고, 그 후 보운에게 입양되었을 때도 그의 양모 역시 젊은 어머니였다. 그의 양모는, 제적부에 의하면, 그보다 13 살밖에 더 먹지 않았다고 한다. 젊은 계모와 젊은 양모 밑에서 성장한 현진건에게서 나타나는 모성의 결핍은 그의 삶과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초기소설에서 나타나는, 아내에 대한 유아적 투정, 술이라는 액체에 대한 집착, 춘심과의 연애에서 보듯이 성 행위에 대한 공포와 입맞춤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는 그의 모성 결핍을 보상하려는 '구강기'(die orale Phase)로의 강력한 퇴행 의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결혼을 한 1915 년 동경으로 떠났다. 동경에서 그는 세이조오 중학에 편입하였고, 여기서 그는 영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공부하였다. 이 후 1918 년 일본에서 귀국한 뒤에 다 시 상하이로 유학 가서 독어를 배우다 1919 년 3.1 운동 전에 귀국하였다. 그가 이렇게 짧은 유학생활을 한 것은 경제적인 몰락 때문이었다.

1919 년 9 월 10 일 보운에게 입양되고, 위로 양조모와 양모를 모시고 아내와의 실질적인 살림을 시작함으로써 1919 년에 첫딸을 낳는다. 그러나 그는 장녀와 이녀를 각각 1920 년과 1922 년에 잃고 그의 유일한 혈육이며 현재 박종화의 자부(子婦)인 화수(和壽)를 1925 년에 얻는다.

가정적인 안정과 함께, 그는 사회적으로는 문필가라는 위치를 서서히 정립해나간다. 습작시대를 거쳐, 1921 년 「빈처」를 발표함으로써 그는 일약 문명을 획득하여, 이 덕택에 『백조』[16] 동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1922 년 『타락자』라는 소설집을 발간함으로써 그는 1917 년에 아마추어 동인지 『거화』를 통해 보였던 문학가로서의 입지를 성취하게 된다.

한편, 그는 1921 년 조선일보에 입사함으로써 신문기자로서의 첫발을 디딘다. 그는 당시 신문기자라는 직업에 상당히 매료되어 있었지만, 조선일보는 당시 친일단체 대정친목회[17]의 기관지로서 친일적인 신문이었다. 따라서 그의 이상을 좌절시키고 만다. 그래서 그는 조선일보에서 곧 『동명』으로 옮긴다. 『동명』은 계몽주의자 최남선이 주관한 신문으로, 그가 뒤에 「고도순례경주」(1929), 「단군성적순례」(1932)와 같은 조국순례와 역사소설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 육당(六堂)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명』이 『시대일보』(1923~1925)로 전환 후 『동아일보』로 옮기게 된다. 그가 입사했을 때 동아일보는 경제적 안정 위에서 당시 조선민중의 최대 표현기관으로 성장했다. 1925 년 사회부 기자로 입사하여 1928 년 사회부장이 되어 1936 년 일장기 말살사건[18]으로 사직할 때까지 동아일보의 핵심인물로 활동한다. 이 시기에 그는 당시 사회와 가

---

15) 1900 (광무 4) 12 월 궁내부(宮內部)에 둔 외사과(外事課)와 번역과(繙譯課)를 폐지한 대신 예식원을 신설하 여 궁내의 외교사절과의 교섭과 예식 및 친서(親書)·국서(國書)와 외교문서의 번역을 담당하게 하였다.

16) 편집인 홍사용(洪思容). 발행인 H.G.아펜젤러. 경성문화사 발행. 동인은 홍사용·박종화(朴鍾和)·현진건(玄鎭健)·이상화(李相和)·나도향(羅稻香)·노자영(盧子泳)·박영희(朴英熙)·안석영(安夕影)·원우전(元雨田)·이광수(李光洙)·오천석(吳天錫) 등이며, 3 호부터 김기진(金基鎭)이 참가했다. 한국 근대 낭만주의의 화원(花園)으로 불리는 이 잡지는 통권 3 호로 끝났지만 각 권마다 중요한 작품이 수록되었다.

17) 일본이 국권을 침탈한 뒤 모든 결사가 금지되었던 무단정치 시기인 1916 년에 유일하게 결성된 친일단체로 조중응(趙重應)을 대표로 하여 설립되었다.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정의(情誼)를 두텁게 하고 정신수양을 꾀한 다는 취지를 내세웠으며, 국가경축일·법령의 주지·납세의무 강조·근검저축·식산흥업·예의질서 등에 대해 연구 하여 한국 민중들로 하여금 일제의 무단정치에 순응하도록 하였다.

18) 1936 년에 일제에 의하여 우리나라 민족 언론이 탄압을 받았던 사건. 그해 8 월 1 일에 열린 베를린 올림픽마 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모습을 다룰 때에 몇몇 신문사에서 손기정의 유니폼에 달려 있던 일장기를 지워 버린 사진을 신문에 실었다. 결국 이에 대한 일제의 탄압으로 《동아일보》는 무기 정간을 당하였고, 뒤 이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휴간되었다.

장 치열하고 긴장된 관계를 맺으며 이 역작용으로 술주정이 점점 심해지고,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며, 결국 1933 년 말 패혈성 단독에 걸리어 죽고 사는 고비에서 몇 주일을 방황한다.

한편 그와 가장 친한 친구인 나도향(羅稻香)이 "민족과 가장 인연이 깊은 빈궁" 때문에 1926 년 8 월에 "타계의 객"이 되며, 상하이에서 사회주의계열의 운동가로 활동하던 숙형 정건이 체포되어 3 년형을 받고 1932 년 평양형무소에서 형독으로 병사하며, 정건의 아내 윤덕경이 1933 년 "모든 것을 시숙(현진건)에게 부탁"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남편을 따라 순사한다. 식민지의 빈궁에 희생되는 친구의 죽음과 식민지라는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저항적 지식인, 숙형의 죽음을 통해 그는 온건한 문화주의자의 불가피한 타협을 정직하게 고민한다. 1936 년 8 월 일장기 말살사건에 연루되어 반년의 옥고를 치르고 신문사를 사직함으로써 그의 신문기자 시기를 마감한다.

이 시기에 그는 식민지라는 질곡을 명석하게 인식하여 초기의 관찰자적 태도의 불가함을 깨닫고, "짧으나마 굵게 살고 옥쇄(玉碎)할지언정 와전(瓦全)치 않은" 정신의 가열성을 획득하게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의 민족주의적 후기 문학이 개화하는 것이다. 민족의 '위대 한' 과거를 발견함으로써 자학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민중에게 3.1 운동의 집단적 이상주의 의 회복을 은밀히 전파한 「고도순례경주」(1922)와 「단군성적순례」(1932)는 그의 후기 문학의 모태로 된다. 이 순례기들이 당시에 횡횡했던 복고주의로 전락하지 않았던 것도 생생한 현실감 위에서 과거를 인식하는 건강한 역사의식 덕분일 것인데, 그의 민족주의는 민중의 구체적 생활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1937 년 옥고를 치르고 나온 그는 일체의 사회활동에서 일탈함으로써 초기의 다산성을 회복한다. 1938 년에 연재를 시작하여 39 년에 『무영탑』을 완성한 후, 곧 『흑치상지』를 연재하나 1940 년 1 월 16 일 52 회로 강제로 중단 당한다. 또 1926 년에 간행된 『조선의 얼굴』이란 단편집은 치안에 기휘(忌諱)[19]되어 1940 년 7 월 발간금지를 당한다. 검열의 강화에 의해 문자 활동마저 차단된 것과 함께, 그는 미두 [20]에 손을 댔다 실패함으로써 격심한 경제적 몰락을 경험한다. 그는 부암동 집을 팔고 누옥을 전전하면서 빈궁 속에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수치스러운 전향의 논리로 아세하는 40 년대를 지조로써 일관한다.

그 후 그는 장결핵의 악화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다. 1943 년 3 월 25 일, 주례 서지 않기로 유명한 육당(六堂)의 주례로, 그의 화소를 박종화의 자부(子婦)로 출가시킨 꼭 한달 후, 1943 년 4 월 25 일 밤 12 시 제기동(137 번지의 61) 누옥에서 아내 홀로 지켜보는 가운데 '죽거든 화장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영면한다.

② 문학관

현진건의 문학관은 첫째 1920 년에서 26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번역소설, 둘째는 1924 년에서 26 년에 나타나는 본격적인 문학론과 그의 비평, 셋째는 동아시대의 의식의 변모를 드러내는 순례기, 넷째는 의식의 변모에 대응하는 역사소설론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그는 번역소설에서 J.르나르 [21]의 투명한 언어감각과 치밀한 형상화를 터득하고, 또 일련의 러시아 작가들로부터 무엇을 문제삼아야 되는가 라는 인식의 깊이를 시사받았다. 고통받

19) (忌諱): 꺼리고 싫어함.

20) 미두(米豆): 현물 없이 쌀을 팔고 사는 일. 실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쌀의 시세를 이용하여 약속으로만 거래하는 일종의 투기 행위이다.

21) J. 르나르 Renard, Jules(1864~1910): 프랑스의 소설가·극작가(1864~1910).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았고 현실의 섬세한 인상을 간결하게 그렸다. 작품에 <홍당무>, <박물지> 따위가 있다.

는 민중의 문제와 민중의 고통을 고민하는 지식인의 문제가 현진건 문학의 끊임없는 관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현실을 거부하고 과거에 몰입함으로써 단아함을 지키려는 민족주의문학 22)과 민중과의 공감적 흐름을 외면한 체, 미래의 행복을 성급하게 선동하는 프로문학을 비판하고, 현실 속에 고통받는 민중을 정직하게 응시하고 그 비참과 고통을 나누어 가지려는 '오늘'의 문학관을 펼치는데, 그의 실제비평은 피상적으로는 작품의 기교적인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그의 문학관과 상반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의 기교에 관한 관심은 "독자에게 작용하는 힘"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론의 모색이지, 결코 기교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의 실제비평은 그의 문학관을 작품을 통해 실천하려는 구체적인 방법론의 탐구이다.

동아일보에 입사한 이후, 그의 문학활동은 거의 중지된다. 1926 년 『조선의 얼굴』을 간행한 이후, 그가 발표한 작품다운 작품은 「신문지와 철창」(1929), 「정조와 약가」(1929), 「서툴은 도적」(1931), 「웃는 포사」(1930~31)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는 그가 식민지의 민중에 대한 공감만으로는 글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고난을 극복할 힘과 구체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침중했다.

이러한 한계에서 그는 전통에 눈을 돌린다. 그는 「고도순례경주」(1929), 「사상(史上)의 로만쓰」(1929), 「단군성적순례」(1932)를 발표한다. 그는 이 작품들에서 전통과 만남으로써 식민지라는 현실에 의해 파괴되는 조선혼을 인식하고, 점차 마멸되는 혼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민중의 집단무의식을 의식의 수준으로 점화시키려고 하였다.

1937 년 이후 현진건은 『무영탑』(1938~39), 『흑치상지』(1939~40), 『선화공주』(1949)를 통해 역사소설을 지향하여 20 년대 소설과 뚜렷이 구별되는 후기적 방향을 보인다. 그의 역사소설은 현실에서 탈피려는 낭만주의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적 바탕인 과거를 탐구함으로써 현재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려는 성실한 노력으로, 그는 과거를 관념적으로 도식화하여 교훈소설로 빠져들지는 않는다. 그가 마지막에 도달한 이상주의가 도피나 퇴행으로 전락하지 않는 것은 그가 그의 문학관을 구체적인 생존의 문제에서 출발시켰고, 사회부기자 특유의 부단한 현실 응시가 민중과의 공감적 흐름을 가능케 한 점에 있을 것이다.

-20081110 김정은

3. 소설『무영탑』작품 설명

▶시점 : 3 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불교 국가인 신라
▶주제 : 한 석수장이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예술혼의 승화. 이성간의 지고한 애정

1938 년 7 월 21 일부터 이듬해 2 월 7 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던 현진건의 장편 역사소설. 이 소설은 신라 경덕왕대 서라벌을 배경으로 해서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의 정치적 상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소설 속에서 신라의 정치적 상황은 당학파(唐

22) (民族主義文學): 민족의 번영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 우리나라에서는 1908 년~1919 년에 일제 침략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민족의 계몽과 자주독립을 쟁취하려는 목적에서 형성되었다.

學派)와 국선도파(國仙道派)의 대립 속에 있었다. 전자는 당시 권력층에 있는 금지(金旨)를 필두로 한 사대주의자들로서 당의 문화를 존숭하는 정치세력이고, 후자는 유종(唯宗)을 필두로 한 민족주의자들로서 외세를 물리치고 화랑의 정신을 계승하여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하려는 인물들이다. 소설은 이 양 세력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부여의 석수장이 아사달이 높은 예술정신으로 아름다운 탑을 이룩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당시 지배이념을 대표하는 세속화된 승려들과 오직 탑의 완성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있는 고독한 장인 아사달과의 갈등, 신라 귀족의 딸 주만과 부여에 두고 온 아사녀와의 사이에서 번민하는 아사달의 내면적 갈등, 아사달에게 사랑이 쏠려 있는 주만을 차지하기 위하여 폭력으로 아사달을 제거하려는 금성의 음모, 주만을 가운데 두고 경신과 금성이 벌이는 정치적 갈등, 경신과 아사달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주만의 갈등 등이 이 소설의 핵심적인 플롯이 되고 있다. 현진건은 이 소설을 통하여 당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던 민족의 운명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일장기말소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지 몇 년 되지 않았다는 그의 행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되는 것이다. 비록 일제의 검열 때문에 이 소설의 주제를 사랑과 예술로 수렴시키고 있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재를 부각시킴으로써 민족혼을 고양시키고 있는 것이다. 신라의 정치적 상황을 국선도파와 당학파의 대립으로 설정하고, 국선도파에 서술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든지, 세계의 문화재로 간직해야 할 민족의 보배, 신라의 탑을 부각시킴으로서, 또 그것을 이룩한 예술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준 것은 그 예이다.

즉, 작가 현진건은 무영탑을 형상화함에 있어서 역사와 전설을 재구성하여 작품화하였다. 그러나 사실적인 기록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창작을 위주로 작품화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의 역사나 소설이 영웅이나 귀족적인 인물을 설정했던 것에 비해 이 작품은 서민을 등장시켜 일련의 비극적인 삶을 구성하여 사회적인 모순과 관련지어 보여 준 것으로, 참다운 역사 소설의 전형이 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영탑에서는 내면적으로 종교가 부패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정치 체제에서 사회의 지배 이념과 맞서 싸우면서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유토피아 정신이 사랑과 예술과 영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논문

김무숙, 「현진건의 〈無影塔〉연구」,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20031111 김웅기

4. 소설 『무영탑』과 불국사

「무영탑(無影塔)」에 있어서, 인물 설정과 그 형상화 과정과 시대와의 관계는 낭만주의적 감각과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첫째 신라 통일기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경덕왕(景德王) 때의 이야기에서, 빙허(憑虛)는 예리하게도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허점을 제기하여 문제삼고 있다. 즉 견당 유학생(遣唐留學生) '금성'과 그의 아버지 '금시중'의 철저한 사대 사상과 부패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조적인 인물은 김양상(金良相)의 아우 '경신(敬信)'들로서, 사대 근성(事大根性)과 부패상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들과는 동떨어진 계층의 인물인 석공(石工) '아사달'의 설정에서 이야기의 기본적인 인물들의 융화(融和)와 갈등을 예시한다. 춘원(春園)의 안목에 의하면, 계층적으로 보아 반드시 상류 귀족이나 장상급(將相級)의 인물만이 역사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데 반하여, 빙허는 보잘 것 없는 석공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삼았다. 이런 기본적인 관념의 이질성이 두 작가 사이에서 발견된다. 미완성된 작품

'흑치상지(黑齒常之)'만 하더라도 그는 계층의 안일(安逸)을 누리는 장수가 아니라, 국운(國運)[23]을 회복하려는 애국자다. 인물 설정에 대한 두 작가의 태도의 차는 실상은 단순한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가 의식의 근본적인 이질성이라고 생각된다.

불국사(佛國寺)의 다보탑과 석가탑의 건조자(建造者)가 실제로 아사달인지 아닌지는 사실(史實)에서 구체적으로 실증할 수는 없으나, 소위 신라 전성기가 내포하고 있는 퇴락적(頹落的) 배태(胚胎)를 전반적인 투시(透視)에서 문제 삼기 위하여 빙허는 석공을 채택했다. 신라 문화의 가장 훌륭한 것 중의 하나가 건축 예술이다. 그 시대를 지배한 것은 귀족이나 왕후장상(王侯將相)이지만 신라 예술의 담당자는 보잘것없는 석공이었다는 것은 얼마나 반어적인 현상인가를 빙허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사달을 통하여 나타났다. 귀족 사회의 주제는 권력 쟁탈이었지만, 평민들의 주제는 혹독한 수탈과 착취와 노예적 학대를 받으면서도 전통적인 문화 창조의 역할을 담당했고, 생명을 바치고 국토를 수호했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명예스런 작위(爵位)도 직전(職田)도 훈장도 주어지지 않았다. 민족적인 거창한 사업을 이룬 점에서 김춘추(金春秋)는 크게 추앙됨이 당연하나, 그에 의한 삼국 통일에 대한 위축적이고 다소간은 소국주의적(小國主義的) 국가 의식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반성할 점이 없지 않다. 그의 사당적(事唐的) 가치관은 신라를 교육, 관제(官制), 토지 제도에 있어서 당풍(唐風)으로 바꾸었지만, 그 목적은 왕족과 극히 한정된 귀족들의 경제적 안정과 권력 유지의 수단에 있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통일기의 신라의 전성기이지만 내적으로는 극단적인 귀족 계층의 무한정한 소비 생활에 따르는 부패와 퇴락적 경향이 이미 내포된 것이었다.

-20067102 정길연

23) (國運): 나라의 운명.

<한국문학탐방 7 조>

김 동 리

목 차

1. 생애 및 연보

2. 작품 세계

3. 작품 감상 - <역마>

4. 관련 유적

20031122 박준수
20041187 홍수정
20081102 고윤희
20081115 노소희
20081127 유주신
20081136 전소향

1. 생애 및 연보

김동리 [金東里, 1913.11.24~1995.6.17]

본명 시종(始鍾). 경북 경주(慶州) 출생. 경주제일교회 부설학교를 거쳐 대구 계성중학에서 2 년간 수학한 뒤, 1929 년 서울 경신중학(儆新中學) 4 년에 중퇴하여 문학수련에 전념하였다. 박목월(朴木月) . 김달진(金達鎭) . 서정 주(徐廷柱) 등과 교우 하였다. 1934 년 시『백로(白鷺)』가 조선일보 신춘문 예에 입선함으로써 등단하였다. 이후 몇 편의 시를 발표하다가 소설로 전향 하면서 1935 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화랑의 후예』, 1936 년 동아일보 신
춘문예에 소설『산화(山火)』가 당선되면서 소설가로서의 위치를 다졌다. 1947 년 청년문학가협회장, 1951 년 동협회부회장, 1954 년 예술원 회원, 1955 년 서라벌예술대학 교수, 1969 년 문협(文協) 이사장, 1972 년 중앙대학 예술대학장 등을 역임하였다. 1973 년 중앙대학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81 년 4 월 예술원 회장에 선임되었다.

순수문학과 신인간주의(新人間主義)의 문학사상으로 일관해 온 그는 8 . 15 광복 직후 민족주의문학 진영에 가담하여 김동석(金東錫) . 김병규와의 순수문학논쟁을 벌이는 등 좌익 문단에 맞서 우익측의 민족문학론을 옹호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때 발표한 평론으로,『순수문학의 진의』(1946)『순수문학과 제 3 세계관』(1947)『민족문학론』(1948) 등을 들 수 있다. 작품활동 초기에는, 한국 고유의 토속성과 외래사상과의 대립 등을 신비적이고 허무하면서도 몽환적인 세계를 통하여 인간성의 문제를 그렸고, 그 이후에는 그의 문학적 논리를 작품에 반영하여 작품세계의 깊이를 더하였다. 6. 25 전쟁 이후에는 인간과 이념과의 갈등을 조명하는 데 주안을 두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소설집으로 『무녀도(巫女圖)』(1947) 『역마(驛馬)』(1948) 『황토기(黃土記)』(1949) 『귀환장정(歸還壯丁)』(1951) 『실존무(實存舞)』(1955) 『사반의 십자가』(1958) 『등신불(等身佛)』(1963), 평론집으로 『문학과 인간』(1948), 시집으로 『바위』(1936), 수필집으로『자연과 인생』등이 있다. 예술원상 및 3 . 1 문화상 등을 받았다.

48 년 첫 평론집『문학과 인간』펴냄.
49 년 창작집『황토기』펴냄.
50 년 6.25 발발 때 서울에 숨어 지냄.
51 년 한국문총 사무국장 피선, 문총구국대 부대장 지냄.
56 년 아세아자유문학상 수상.
57 년『사반의 십자가』간행.
58 년『사반의 십자가』로 예술원 문학부문 작품상 수상.
61 년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피선.『등신불』발표
65 년 민족문화중앙협의회 부이사장,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이사 피선.
67 년『까치소리』로 3.1 문화상 예술부문 본상 수상.
68 년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월간문학』창간.
70 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피선. 서울시 문화상 문학부문 본상 수상. 국민훈장모란장 수상.
72 년 서라벌 예술대학장 취임.
73 년 중앙대 예술대학장 취임.『한국문학』창간.

78 년 장편『을화』발표.
79 년 한국소설가협회장 피선. 중앙대 정년퇴임.
81 년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피선.
83 년 5.16 민족문화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피선. 대한민국 예술원 원로회원 추대.
89 년 한국문인협회 명예회장 추대.
90 년 소설가협회장 피선. 7 월 30 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투병.
95 년.6 월 타계

자료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20031122 박준수, 20081102 고윤희>

2. 작품세계

그의 작품 경향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인간 구원의 문제를 주제로 순수한 소설을 창작한 것으로 대표된다. 그의 문학적 여정은 3 기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는 토속적, 샤머니즘적, 동양적 신비의 세계에서 제재를 선택하여 인간 생명의 허무적인 운명과 신비함을 추구하여『무녀도』,『황토기』등을 남겼다. 중기에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보다 더 역사 의식 과 현실 의식이 강화되면서 참여 의식인 강한 작품을 창작하여 『귀환장정』,『흥남철수』, 『역마』등을 발표했다. 후기에는 보다 근원적인 인간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근대 문명에 대한 차원 높은 비판 의식을 형상화하여『등신불』,『사반의 십자가』등을 남겼다.

작가 김동리는 반공주의적 순수주의라는 한국소설의 한 흐름을 창작과 이론 두 분야에서 주도한 인물이다. 샤머니즘과 토속성을 기조로 삼아 시간의 진행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민족 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그의 문학은 가장 민족적이며 따라서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는 찬사 와, 팍팍한 현실에 등 돌린 몽환과 주술의 포로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수반하고 있다.

1935 년 중앙일보에 단편『화랑의 후예』가, 그 이듬해에 동아일보에『산화』가 당선되어 등단한 동리(본명 김시종)는『무녀도』,『바위』,『황토기』등의 문제작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30 년대에 이미 나름의 문학세계를 확고히 했다. 그리고 중학교 4 학년 중퇴라는 최 종학력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세계문학전집과 동서의 철학 및 사상·종교서적 등을 섭렵한 그는 나름의 뚜렷한 문학관을 수립해 자신의 창작을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의 창작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사회 전체의 혼란과 대립이 문학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던 해방공간에 그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50 년 말에는 동리가 이룩하고 지켜낸 문학적 화두는 ` 구경(究境)적 삶의 형식'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구경적 삶의 형식'이란 달리 말하면 인간 의 원형적 조건 또는 운명에 대한 탐구라 할 수 있다.

일제 말기인 30 년대 후반과 해방공간, 그리고 민족적 분단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많은 수의 동료 문인들이 문학과 현실의 불가분의 관련성을 강조할 때에도 동리는 역사와 현실이 휘발해 버린 어떤 민족의 원형적 공간을 상정하고 그 안에서 운명이라는 이름의 알 수 없는 힘에 맞서고자 했다. 그 대결의식은 `역마' '사반의 십자가' `등신불'과 같은 기념비적 작품 으로 구현되기도 했다.

<20041187 홍수정, 20081115 노소희>

3. 작품 감상

『역마』

역마는 1948 년 <백민>에서 발표된 김동리의 단편 소설로 이른바 역마살로 표상되는 '당 사주'라는 동양인과 한국인의 깊은 운명관을 표현한 작품이다. '역마살'이라는 민속적인 소재 를 통해 토속적인 삶과 그 운명을 다룬 이 작품은, 자연의 법칙에 인간의 생명적인 리듬이 무리없이 결합되는 것이라는 작가의 운명론적 세계관을 보여주는『'무녀도』, 『황토기』,
『바위』등과 함께 전통지향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 김동리의 초기 대표작 가운데 하나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은 대부분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주어진 역마살에 둘러 싸여있으며, 소설의 배경인 화개장터 역시 역마살이 낀 장돌뱅이들의 집결지이다. 이 역마살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결혼을 통해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 성기가 사랑하던 계연이 옥화의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의 결혼은 불가능하게 된다. 성기가 자신의 역마살을 운명으로 받아 들이고 유랑의 길을 떠나는 결말은 운명을 거스르지 않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한국적인 운명관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삶의 한 방식으로 운명에의 순응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작품은 운명에 의해 사회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변두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그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옥화는 그의 아버지인 체 장수 모두 운명적으로 변두 리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아들인 성기 역시 역마살을 타고나 변두리 인간으로 살아 가자 옥화는 불교의 힘을 빌어 역마살을 극복하려고 성기를 쌍계사에 보내기도 하고, 또한 계연과 결혼시켜 정착하려고도 한다.

다분히 토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역마살이라는 운명관을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이 작품은 운명을 거역하기 보다는 거기에 슬기롭게 순응함으로써 거기에 생의 리듬을 얻고 있는 한국적인 인간상, 즉, 인간의 자신의 운명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작자의 구경적 생에 대한 인식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등장 인물들이 운명에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인의 의식속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어둠의 측면과 전통을 하나의 질서로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연의 법칙 앞에서 인간의 생명적인 리듬감이 무리없이 결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1127 유주신>

4. 관련 유적

▣화개장터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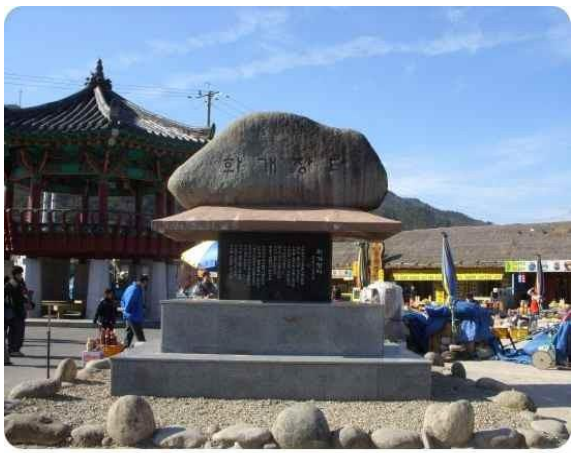
『역마』의 배경인 화개장터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 지역으로 온갖 장사치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교통의 요충지 이자 떠돌이 인생들이 스쳐지나가는 정거장이다. 그리고, 소설속에서 나온 장터에는 옥화의 어머니가 일하는 주막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막을 지나가는 사람을 영원히 잡지는 못한다. 옥화의 어머니가 떠돌이 남사당을 만나 옥화를 낳게 된 것도 그곳이 화개장터의 주막이었기 때문이고, 수십 년 후 옥화가 자기 아버지로 추정되는 노인을 만난 것도 그곳이 화개장터의 주막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인연은

하룻밤일 뿐이고, 다시 만난다 해도 다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역시 그곳이 화개장터의 주막이기 때문이다. 화개장터를 설정함으로써 인물들의 불안한 삶을 보여주고 이렇게『역마』는 배경을 화개장터로 설명함으로써 주제의 개연성을 강화하고 있다.

▣다솔사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추천리 산 86)

1934 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한 김동리는 창작에만 집필하고자 조용한 곳을 찾던 중 형의 소개로 다솔사에 머물게 된다. 다솔사의 요사채 안심요(安心寮)에 머물렀던 것이다. 다솔사는 신라 지증왕 때 연기조사가 창건한 역사 깊은 고찰로 많은 군사를 거느린다는 뜻의 이름이다. 사찰 내에는 조선 영조때 건물로 가장 오래된 대양루와 극락전, 웅진전과 함께 유형문화재가 있으며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이 있어 오랜 세월을 견디어 온 고색창연한 고찰의 향기를 넉넉히 맡을 수 있다. 아울러 암흑같은 시대를 살다간 선각자들이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던 장소로, 소설『등신불』의 배경무대가 되기도 한 곳이다.



자료출처: 하동관광 홈페이지

경주 연합뉴스 (홍창진기자)

<20081136 전소향>

<한국문학탐방 8 조>

박목월 (朴木月)

목 차

1. 박목월의 생애와
작품세계

2. 대표시 감상

3. 청록파(靑鹿派)에 대하여

4. 동리·목월 문학관

20031143 윤대원
20051127 원수진
20061136 이혜림
20081106 김경례
20081131 이은주
20081134 장수영

1. 박목월의 생애와 작품세계

박목월의 본명은 영종으로, 1916 년 1 월 경북 경주군 서면 모량리에서 태어났다. 1929 년 3 월 보통학교를 졸업한 박목월은 이미 중학생 신분의 동요시인이었다. 그가 16 세가 되던 해, 아동잡지『아이생활』에 동요를 투고하였고, 1933 년 봄『어린이』에 통딱 통딱 통딱

이라는 동시를 처음 발표 하였으며, 그 해 6 월『신가정』에 제비맞이 가 현상 당선되면서 정식 동요 시인으로 등단을 한 것이다. 19 세가 되던 해에 그는 계성학교를 졸업하였고 이 직전 1934 년 겨울 박목월은 동향의 선배인 김동리를 만나 친교를 나누었다. 김동리는 박목월에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문우이며, 문학적 열정을 자극하는 일종의 경쟁자 역할을 한다.

1938 년 유익순 여사와의 혼인 후에는 동시뿐만 아니라 성인시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박목월이 성인 시인이 되고자 한 내적 계기는 "동시로서는 내적 충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외적 계기는 1939 년에 창간된 『문장』지의 출현 이었다.

1945 년 해방 후 박목월은 김동리의 권유로 우익단체인 청년문학가협의회에 가입하면서 조지훈, 박두진 등과 교류를 나눈다. 그들은 자연 지향 이라는 공통적인 시 세계를 추구하는 박목월, 두진, 지훈 세 사람의 합동시집을 내기로 한다. 박목월의 작품 「청노루」에 기초하여『청록집』이라는 제목으로 1946 년에 발간한다.

1955 년에는 첫 번째 개인 시집 『산도화』를 발간하고, 1957 년 한국시인협회를 창립 하였다. 그 후에도 자작시 해설서인 『보랏빛 소묘』, 두 번째 개인 시집『난.기타』, 시집 『청담』등을 발간하였다.

1978 년 3 월, 박목월은 영원히 잠들었고 이듬해인 1979 년 미망인 유익순 여사와 장남 박동규 교수에 의해 유고시집 『크고 부드러운 손』이 간행되었다.

그의 작품에서는 자연, 어머니, 신앙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먼저 자연의 세계를 살펴보면, 그의 자연물은 예컨대 청노루나 자하산 등의 추상적 대상에서 비롯된다. 동시에 나오는 순한 동물들과 환상적 기법은 초기 시의 자연을 설정하는데 바탕이 되고 있으며, 후기 시에서의 자연은 처음에는 실제의 자연이지만 그 자연을 통한 구원의지를 표현한다. 때묻지 않은 자연을 삶의 지표로 삼고 이 자연이 후기 신앙시에 가서는 부활하는 의지의 자연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박목월의 시는 청색 계열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데 초기 시에서는 뚜렷한 구분이 없지만 후기시에서는 삶의 근원인 물의 상징과 하늘의 상징인 청색으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두 번째로 어머니와 관련한 그의 작품관이다. 박목월의 시에서 어머니는 삶과 영혼의 좌표이며, 신앙시에서 부활 의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모체이다. 박목월의 향수, 향토는 소년 시절의 체험과 관계가 있는데 그 체험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 또한 어머니 이미지이다. 어머니의 존재로 향수가 지속적인 것이 되고 또한 기독 신앙과 신앙시가 생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수는 동심, 모성과 관계가 깊으며 이와 같은 보편성을 삶의 양식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박목월 시에서 특징을 이루게 된다.

세 번째로 신앙의 세계이다. 박목월의 신앙시는 어머니를 안내자로 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이것은 초기 시의 자연, 향토성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점을 박목월의 신앙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현수, 『새미작가론총서 14』(새미, 1994)
이탄 『문학의 이해와 감상』(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조사자 : 06-이혜림, 08-장수영

2. 대표시 감상

<나그네>

술 익은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 지훈(芝薰)에게

강(江)나루 건너서 / 밀밭 길을 /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길은 외줄기 / 남도(南道) 삼백리(三百里)
술 익은 마을마다 / 타는 저녁놀 /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청록집(2006) -

이 작품은 조지훈의 「완화삼(玩花衫)」에 대한 화답 시로 씌어졌다. 이 시는 7.5 조의 음절수를 기초로 한 3 음보 율격의 민요조 가락과 친근한 우리말 구사한다. 그리고 간결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그려내고 있다. 자연에 동화된 인간의 모습을 통해 행운유수(行雲流水)하는 유유자적함을 보여준다. 많은 이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박목월의 대표 시 중 하나이다.

<청노루>

머언 산 청운사 /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 봄눈 녹으면,
느름나무 / 속잎 피어 나는 열 두 구비를
청노루 / 맑은 눈에
도는 / 구름

- 청록집(2006) -

이 시는 산뜻하고도 경쾌한 작품이다. 2.3 조를 기본 리듬으로 한 음악적 표현인데, 불과 47 자를 동원하여 직관에 의한 감미로운 시정(詩情)을 남김없이 살려 놓았다. 일제말기의 암흑시대에 '자하산'은 포근히 은신할 수 있는 곳으로, '청노루'는 구김살 없는 생명의 한 상징으로 '이상적인 생명의 고향'을 이 시는 표현하고 있다. 자연 속에 뛰노는 '청노루'는 청록파의 중심적 왕자였으며, 작품상으로 「나그네」보다 한층 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이 시는 시각적 심상으로 봄의 청아한 풍경을 관조적 태도로 노래한 작품이다. 시상의 초점을 이룬 '청노루'의 그 맑은 눈에 자연의 아름다움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윤사월>

송화(松花) 가루 날리는 / 외딴 봉우리 / 윤사월 해 길다 /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 집 / 눈 먼 처녀사 / 문설주에 귀 대고 / 엿듣고 있다
- 청록집(2006) -

이 작품은 세련된 시어를 사용하여 순수한 산수의 서경과 인간 본연의 근원적 애수를 노래한 목월의 초기시 세계를 대표하는 민요풍의 서정시이다. 7 · 5 조를 바탕으로 기 · 승 · 전 · 결의 구성을 취하고 있는 이 시는 어느 산 속의 풍경을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 보여 주면서, 그 속에서 눈 먼 처녀의 애틋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불국사>

흰 달빛 / 자하문
달 안개 / 물소리
대웅전 / 큰 보살
바람소리 / 솔소리
범영루 / 뜬 그림자
흐는히 / 젖는데
흰 달빛 / 자하문
바람소리 물소리

-산도화(1955)-

박목월의 자연 친화 사상과 불교적 선(禪)의식을 바탕으로 한 이 시는 달빛 내려 비치는 불국사의 고요한 풍경을 지극히 절제된 언어와 교묘한 시행 배열로 그려낸 작품으로, 「청노루」와 함께 "시는 서술이 아닌, 묘사요, 이미지의 제시"라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 이 시의 특징은 서술적 표현을 절제한 명사로만 이루어진 시행으로 조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참고문헌>
박목월,『청록집』(을유문화사, 2006)
홍근표, 「박목월의 시 연구」(경남대학교, 1987)
서경온, 「박목월 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1988)
김형필, 『박목월시연구』(이우, 1988)

조사자 : 05-원수진, 08-김경례

3. 청록파<青鹿派>에 대하여

1939 년 『문장(文章)』의 추천으로 등단한 세 명의 시인 즉,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은 시를 쓰는 모양새는 달랐지만 자연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시를 썼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1946 년 6 월 시집『청록집(靑鹿集)』을 함께 펴내어 청록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청록집』은 A5 판으로 박목월의 시「청노루」에서 책명을 따왔다고 하며, 박목월의 「나그네」를 비롯하여 모두 15 편이 수록되었고, 조지훈의 시는「봉황수」등 12 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박두진의 시는「향연」을 합하여 12 편이 수록되어 총 39 편이 수록되어있다.

일제강점기 말 등단하여 한글로 작품을 발표하였고, 암흑기 가운데에서도 자연을 주제로 자연속의 인간의 심성을 담은 글들을 썼다. 해방 후에도 그런 문학적 순수함을 잃지 않았는데 그리하여 해방 후, 1945 년 해방을 맞이한 박목월은『문장』폐간 이후 묻어 두었던 노트와 작품들을 꺼내 다시 손질한다. 1946 년에는 김동리의 권유로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의 준비위원으로 참가하면서 박두진, 조지훈 등을 알게 되어 같은 해 6 월 6 일『청록집』을 발간하게 된다.

『청록집』은 기성 시인의 것으로는 해방 후 처음 나온 창작집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세 사람은 자연을 제재로 하여 글을 쓴 공통점이 있었지만, 시를 쓰는 모양새가 많이 달랐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발표를 맡은 박목월은 자연을 향토적 서정을 민요가락에 담담하고 소박하게 담아내는 한편 박두진은 질식할 듯한 일제 말기의 절망적 현식 속에서도 자연에 친화력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간의 종교적 기다림을 노래하였고, 조지훈의 경우 고전미속에 문화적 동질감을 담아 일제에 저항하는 시를 썼다는 차이가 있었다.

여기서 발표를 할 박목월의 대표작인 <나그네>의 경우 향토적인 배경, '밀밭길'과 '타는 저녁놀' 등을 소재로 사용하며 7.5 조 3 음보의 음율을 지니고 있어 민요적인 향토미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박목월,『청록집』(을유문화사, 2006)
김승섭.「청록파 시 대비 연구」(건국대 교육대학원, 2002)

조사자 : 03-윤대원

4. 동리목월 문학관

박목월과 소설가 김동리(1913-1995)는 경주가 낳은 한국 문학계의 두 거장으로 생전의 남다른 우정을 나눈 사이이기도 하다. <동리목월 문학관>은 생전의 두 사람의 우정을 기념 하듯한 공간 속에 '좌 동리 우 목월' 이라는 이름과 같이 나란히 자리를 시켜 사후에도 끈 끈한 인연을 이어가듯 양 전시실에 두 사람의 유품을 전시해 두었다.

박목월과 김동리의 우정은 박목월의 저서 「달과 고무신」에서도 나타나있다.

"수목이 우거진 고분 옆에 있는 초라한 하숙집에서 낮이면 직장에 나가 주판알을 튕기고 밤에는 시를 썼다. 고독했다. 혼자서 밤을 새우며 막연한 동경과 갈증으로 걷잡을 수 없는 고독감을 시로 읊은 것이다. 술을 배운 것도 그 당시다 . 그 무렵 소설가 김동리를 사귀게 되었다. 그도 문학청년 시절이 었다. 다음 세대는 틀림없이 우리가 한국 문단의 주인인 된다고 동리는 몇 번이나 장담했다. 그러나 문학에 대한 굳은 신념과 자신을 가진 그였지만 고독하기는 나와 다를 바가 없다.

문학하는 유일한 친구인 동리와 오래 사귈 수 없었다 그는 서울로 해인사로 떠돌아다니다가 다솔사로 간 후 영영 소식조차 끊어져 버렸던 것이다 . 이 고독을 달랠 수 있는 길은 시를 쓰는 일. 시를 읊으며 처량한 고독의 달밤을, 수정 남산의 그늘이 잠긴 골짜기를, 이슬이 자욱한 야심한 반월성을, 풀

이 우거진 왕릉의 오솔길을 배회하는 것뿐이었다."

박목월은 위와 같이 이야기하며 젊은 시절 김동리와의 우정을 추억했다.

작가의 기념관 내부는 마치 두 사람이 생전에 사용하던 서재를 옮겨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든다. 전시관 곳곳에 생전에 쓰던 원고와 손때가 묻은 유품들을 진열해 고인의 체취가 느껴질 정도로 꾸며놓았기 때문이다. <동리·목월 문학관>은 유족으로부터 기증·위탁받은 박목월과 김동리의 저서를 비롯 약 7 천여 종의 장서와 육필원고를 비롯한 문학자료 1 천 5 백여 점, 생활유품 2 백 50 여점, 추사·운보·월전 등의 애장품 30 여 점 등 국내문학관 중 가장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동리·목월 문학관>을 건립하는 데 앞장섰던 사단법인 《동리·목월기념사업회》는 2000 년 12 월 1 일, 한국 문단의 거봉 김동리와 박목월의 문화적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을 세워서 지역사회의 정신문화를 견인하는 문화의 전당으로 만들자는 건립취지에 찬동한 13 명이 모여, 《동리·목월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장윤식 외 12 명으로 구성된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주관한 발기인 대회가 2001 년 2 월 3 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고, 전국에서 온 회원, 문인, 예술인 등 330 여명이 사단법인《동리·목월기념사업회》를 정식으로 발족시켜 회장에 장윤익, 부회장에 오해보, 서영수를 선출하였다.

976 명의 회원을 가진 《동리·목월기념사업회》는 경주시와 공동으로 문학관 건립을 위해 예산 40 억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부지선정부터 건물의 기초설계, 인테리어, 전시의 작업진행에 대한 조언, 개관 행사 등을 기획하고, 문학관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동리·목월의 연구서 발간과 유품관리, 문학관의 홍보 및 관련된 각종 행사의 계획과 진행 등 문학관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동리·목월 문학관 공식홈페이지 (http://www.dmgyeongju.com)

조사자 : 03-윤대원, 08-이은주

<한국문학탐방 9 조>

김시습과 <금오신화>

목 차

1. 김시습의 생애

2. 김시습의 문학관

3. <금오신화>의 창작 배경과 의의

4. <금오신화> 감상

5. 김시습 관련 유적

20011173 최문관
20071110 김수빈
20081111 김주경
20081114 노병욱
20081128 이기범
20081135 장아름

1. 김시습의 생애

1435 년 서울에서 출생, 본관은 강릉, 자는 열경(悅卿), 호는 매월당 동봉(東峰) 법호는 설잠(雪岑)이다. 천재의 자질을 타고나서 3 세에 벌써 글자를 알아 시를 지었으며, 5 세 때는 중용과 대학에 능했다고 한다. 21 세 때 삼각산 중흥사(重興寺)에서 공부를 하던 중 수양대군의 왕위찬탈 소식을 듣고 그는 3 일을 통곡한 끝에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10 년 동안 전국을 유랑하였으며, 이 여행의 견문과 정회를 담은 기행시집인 〈매월당시 사유록〉을 남겼다. 31 세 때부터 경주의 남산(금오산)에 금오산실을 짓고 정착하였으며, 이 시기에 최초의 한문소설로 불리는 금오신화를 창작하였다. 37 세(성종 2 년)때는 상경하여 수락산 기슭에 폭천정사를 세우고 몸소 농사를 지어 생계를 영위하며 살아갔다. 47 세 때 환속을 하여 결혼을 한 일이 있었으나 이듬해 폐비윤씨 사건이 일어나자 다시 관동지방 등으로 방랑의 길에 나섰다. 49 세(성종 14 년)때 그가 서울에 오자 주변에서 벼슬하기를 권했으나 그는 정치현실이 근본적으로 옳은 방향을 취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 현실참여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실의와 좌절감에 사로 잡혀 기행을 저지르기도 하더니 마침내 다시 현실을 떠났다. 그는 소양호 주변의 청평사, 설악산 등지에서 한동안 머물렀고, 다시 강릉 지방에서 배회하다가 마침내 충청도 홍성 무량사로 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마쳤다. 그 때 59 세였으며 무량사에는 그의 부도(浮圖)가 남아 있다.

그는 우리나라 사상사에서 우주 만물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시도한 최초의 철학자로 볼 수 있다. 그에 있어서 기철학은 사회사상으로 전개되었는바 연결고리가 된 핵심개념은 생생(生生)이다. '생생'을 가장 중시하며 생물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남획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애물'을 주장했는데 인간 문제로 와서는 '민생'의 개념으로 연계된다. 그리하여 일반 백성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애민, 인정의 정치학을 역설하였다. 유교적 민본(民本)의 이념에 입각한 이론으로 민주적 요소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사상의 싹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정치적 이상과 정치현실 사이에 거리가 없을 수 없었다. 때문에 세상과 나 사이의 모순, 시대와의 불화는 피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그는 스스로 현실 권으로부터 이탈, 고독과 고뇌를 감내하며 건건한 자세로 자아를 고수한 것이다.

그의 한시작품은 모두 15 권의 분량에 이르고 있다. 시세계는 자연과 인간 만사로부터 천재의 자유분방한 상상력에 이르기까지 담아내지 않은 것이 없다할 정도로 방대하고 풍부하다. 그 중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들어보면 하나는 국토산하의 아름다움을 빼어나게 표출했다는 점, 다른 하나로 백성의 먹고사는 어려움과 사회현실의 모순을 심각하게 고발하고 날카롭게 그려냈다는 것이다. 금오신화는 나말여초에 발생했던 전기소설을 계승 발전시킨 형태로 5 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작가의 심오한 인간정신, 고도의 상상력이 어우러져서 각기 개성적이고 예술성이 높은 작품으로 완성된 것이다.

김시습은 시대와 불화했던 체제 밖의 지식인이었다. 그의 고결한 인품, 굳센 지조는 후세에 기리 존경을 받게 되었으니 선조는 특별히 율곡 이이에게 그의 전기를 짓도록 하는 한편 [매월당집]을 발간하도록 명했고, 정조는 청간공(淸簡公)이란 시호를 내려 그 풍모를 기렸다.

(참고:http://person.mcst.go.kr 한국의 문화인물)

(조사: 20071110 김수빈)

2. 김시습의 문학관

매월당 김시습은 우리 역사의 격변기 가운데 하나인 15 세기 중.후반의 어수선한 사회 분 위기와 거친 현실의 풍파에 시달리다 전국을 방랑하며 방외인으로써 일생을 살다간 사대부 지식인의 한 사람이다. 그는 눈에 비친 불합리하고 모순투성인 현실을 한탄하며 그런 현실 에 타협하지도 또 완전히 등 돌리지도 못한 채 59 년의 길지 않은 일생을 그렇게 방랑과 고 독 속에서 살다간 불우한 천재였다. 그의 이러한 비판과 저항정신은 그의 시를 통해서 표출되었으며, 그가 남긴 수많은 시들이 그의 생각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김시습은 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으로 '교화'와 '감동'을 내세우고 있다. 김시습은 <금오신화>를 창작하게 된 동기의 하나가 된 명나라 구우의 <전등신화>를 읽고 난 소감, 즉 「전등신화 뒤에 쓰다 (題剪燈新話後)」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말이 세상의 교화에 닿으면 괴이해도 무방하고,/사건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허탄해도 좋으리라./

작품에 등장하는 언어적 표현들이 세상을 교화하는 데 연관된 것이라면 기이하거나 색다르다 해도 혐의될 것이 없으며, 그 내용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 이르는 것이라면 비록 허황하다 해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세교와 정화의 측면에서 전기적 문장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시는 단편집 <전등신화>의 환상적이고 공상적인 이야기에 대한 매력과 흥미로운 감동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그가 문학적 허구성과 환상이 지닐 수 있는 의의를 바르게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풍교'의 전통은 그 역사가 깊지만 이렇듯 감성의 자유로운 발로를 지향하며 개성적인 표현과 내용을 높이 평가하는 태도는 17 세기 이후에나 본격적인 양상을 띤다는 점에서 당대로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문학관은 또한 당시의 '풍교'의 전통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진취적이고 비판적인 의식을 문학에 담아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당시의 사대부들이 말한 세교란 충성과 효도, 경계와 훈계 등을 시에 담아 풍화와 교화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면 김시습의 세교는 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김시습의 생애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중세적 권위에 순종하거나 안주하지 못하고 자기 갈등과 번민 속에서 일생을 보냈다. 그는 불합리한 현실에 순응할 수도 없었고 또 체념할 수도 없었다. 방외인으로 떠도는 가운데서도 현실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않았고, 폭정에 가슴아파했다. 김시습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토로하고 불의의 현실에 맞서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의 현실대응의 문학관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그가 한 평생 수천의 시를 남긴 것은 천부적인 시적 재질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방외인으로써 현실을 벗어나 불합리와 각종 모순에 대항한 현실대응의 산물이었을 것이다.

김시습은 현실의 불합리에 대응하는 비판적인 안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본적 사상을 부르짖었으며 그 의지를 시를 통해서 표출하였다. 이러한 김시습의 강한 현실주의 정신이 문학의 현실성을 고조시킨 시적 표현을 이루게 하였으며, 그의 이러한 사유는 관념론에 매몰되지 않은 현실주의적 문학관을 낳았다.

(참고:http://ref.daum.net/item/11139433)

(조사: 20081128 이기범)

3. 〈금오신화〉 창작배경과 의의

금오신화는 1465 년 중년의 나이인 김시습이 경주 금오산에 은거하면서 지은 전기적(傳奇的) 한문 소설로 독립된 단편을 묶어 놓은 단편소설집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 인정되고 있으며 완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 전해지는 것으로는 〈만복사저포기 萬福寺樗蒲記〉·〈이생규장전 李生窺牆傳〉·〈취유부벽정기 醉遊浮碧亭記〉·〈남염부주지 南炎浮洲志〉·〈용궁부연록 龍宮赴宴錄〉 등 다섯 편이다. 국내에는 필사본 밖에 없고 일본에서 간행된 것이 1927 년 《계명(啓明)》 제 19 호에 최남선(崔南善)에 의하여 소개되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동경판 ≪금오신화≫가 소장되어 있다.

김시습은 개인의 본래성을 구현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사회 현실을 응시하고, 세계와 현실에서 느끼는 고통과 슬픔을 담아 금오신화를 집필하였다. 그는 귀신, 염왕, 용왕, 염부주, 용궁 같은 비현실적인 소재를 이용했고, 죽은 사람의 혼이 돌아온다거나 꿈속의 다른 세상에서 노닌다거나, 인간이 귀신과 사랑을 나눈다거나 하는 기이한 상상을 거리낌 없이 글로 적었다. 그러면서도 그 기이한 상상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실상과 의미를 생생하게 드러냈다. 특히 〈만복사저포기〉는 고려 말 왜적의 침략을 배경으로 하고, 〈이생규장전〉은 고려 말 홍건적의 난을 배경으로 하였다. 외적의 침략으로 민족 구성원의 삶이 유린당한 사실을 아프게 그려낸 것이다.

한편, 〈취유부벽정기〉는 옛 도읍 평양을 무대로 삼아, 풍경 속에 민족사의 흐름이 스며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남염부주지〉는 조선 초에 유행한 지옥의 관념을 소재로 삼으면서, 올바른 이념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였다. 〈용궁부연록〉은 개성의 박연폭포에 산다는 용 전설을 끌어와 환상의 공간 속에서 모든 고통이 소멸된 환희를 유쾌하게 노래하였다.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거의 행복한 결말인데 비해 금오신화는 결말이 죽음으로 그려져 있다. 이것은 이 작품이 얼마나 특이한 것이었는지를 말해준다. 그 당시 김시습이 처한 불우하고 기구했던 시대의 사회상을 부각시켜 설화문학 이후 창작문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명나라 구우의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향토적 주인공을 내세워 창작한 점이나, 현실과 초 현실 사이의 갈등과 개연성이 잘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모방의 수준을 넘어선 독창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전소설들은 거의 모든 작품들이 일대기 형식과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이것에서 벗어난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도 금오신화는 다른 여느 작품보다도 문학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김시습의 문학사적 위치는 그의 수많은 작품 가운데서도 금오신화를 창작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조선 전기 신흥사대부의 한 사람이면서도 당시의 체제에 속하기를 거부한 탈 속적이고 현실 비판적인 삶을 살다 간 대학자이며 문인이다. 그는 유학자이면서 승려였고 도선 사상에도 일가견을 가진 지성인이었다. 또한 절의를 지키면서도 공명을 이루려 했던 당대의 사상가였다. 그는 또한 현실주의자로서 이상을 추구하는 양면성을 띠고 있었는데 이러한 면모는 그의 작품 금오신화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정치상과 시대상이 빚어 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참조 http://cafe.naver.com/bulgo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12
http://www.seelotus.com/gojeon/gojeon/so-seol/man-bok-sa-jeo-po-ki-outline.htm)

(조사: 20011173 최문관, 20081135 장아름)

4. 〈금오신화〉 작품 감상

(1) 만복사저포기

이 작품은 '양계(陽界)와 음계(陰界)의 인물의 만남, 이별, 양계의 인물이 속세를 버림'이라는 줄거리로 되어 있다. 주인공 양생은 비록 현실이 아닌 음계의 인물과 만나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것을 한갓 장난이나 일시적인 것으로 알지 않고 진실한 것으로 생각했다. 음계의 여인이 사흘 동안의 재가 끝난 후 공중에 나타나, 자신이 양생의 은덕으로 타국의 남자로 태어났음을 말하고, 양생에게 정업을 닦아 속세의 누를 벗어날 것을 부탁하지만, 양생이 장가도 들지 않고 속세를 떠났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이 작품은 설화적 소재에 자신의 창의성을 가하고 상당 수준의 소설적 형식을 갖춤으로써 소설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니고 있다.

(2) 남염부주지

이 작품은 특히 김시습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신비로운 내용을 그린 한문 단편 소설, 전기 소설로서 그 문학적 가치가 크다.

이 작품의 내용은 불교를 사도로 보고 있으면서도 불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종교관을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해서도 왕도(王道)와 패도(覇道)의 다름을 말하고 왕도를 고취하고 패도를 배격하고, 고금(古今)의 여러 왕들의 치란(治亂)의 자취를 들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은 이상의 유교관(儒敎觀), 불교관(佛敎觀), 정치관(政治觀) 등으로 작가는 전등신화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3) 용궁부연록

주인공이 꿈속에 용궁으로 초대되어 가서 겪은 일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구조 유형상 몽유소설로 분류된다.

주인공은 꿈을 통하여 자신이 지닌 지적인 능력을 발휘해 보이고 융숭한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꿈에서 깬 뒤에는 이 세상의 명리를 구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는 것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작품은 비극적 성격을 드러내게 되고, 현실과 이상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게 된다. 주인공이 자신의 뛰어난 재주를 알아주지 않고 재능을 발휘할 만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실세계를 등지게 되는 데서, 작자의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과 문제의식을 느끼게 한다.

이 작품은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화려한 용궁 체험과 그로 인한 삶의 무상감을 이 작품의 주제라 한다면, 기본 성격은 <금오신화>의 다른 작품들과 유사하나 그 속에 담긴 의식은 그다지 심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용궁에서 글 짓는 기능의 평가는 현실에서까지 이어진다. 즉 용궁에서 받은 선물이 꿈을 깨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그 평가가 격하되지 않음을 말한다. 그 후에 명리에 생각이 없고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작품의 결말에서도 그러했듯이, 현실에서는 패배자가 되어서라도 자신의 의지를 굳히고 세상의 횡포를 거부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낸 것이다

(4) 이생규장전

작품의 전반부에는 남녀 주인공의 자유연애를 설정해 놓았고, 후반부에서는 '만복사저포기'에서와 같은 인귀 교환(人鬼交歡)의 이야기로 구성해 놓았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이승과 저승의 한계를 뛰어넘는, 즉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전반부에서 보여 준 이생과 최 여인의 현실적 사랑은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처럼 관습을 과감히 깨뜨리고 사랑을 실현한 행위는 작자의 솔직하고 대담한 애정관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은 '전등신화(剪燈新話)'의 영향을 받았으나 단순한 모방은 아니고 여러 작품에서 모티프를 빌려 왔으며, 플롯이나 테마 면에서는 독창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완전한 하나의 창작 소설을 만들어 냈다. '이생규장전'은 소설의 한 본질인 흥미를 십분 살려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실린 다른 작품에 비해서도 작품성이 우수하다.

(5) 취유부벽정기

남녀 간의 사랑을 제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작자의 작품인 <만복사저포기> 및 <이생규장전>과 동일하나 정신적인 사랑을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그들과 구별된다. 불의와 폭력에 의하여 정당한 삶과 역사가 좌절되는 아픔을 표현한 작품이어서 짙은 우수가 서려 있다. 귀가한 주인공이 기씨녀를 그리워하다가 죽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작품이 비극적 성격을 지니나 죽어서 신선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그러한 성격이 다소는 약화되어 있다. 이 작품의 해석과 평가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엇갈려 있다. 작품에 나타난 사건을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역사적 사건의 우의(寓意)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선녀와의 연애 및 선계로의 승화를 현실도피로 보고 그것은 작자의 현실주의적 사상과 모순되는 것이기에 작품은 결국 작자의 정신적 갈등을 반영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모순에 찬 세계를 개조해서 세계와 화합하려는 자아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세계의 대결을 통하여 소설적 진실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견해도 있고, 작품을 도가(道家)적 문화의식의 투영으로 해석하여 작품에 나타난 갈등을 동이족의 문화적 우월감과 함께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 극렬한 반존화적(反尊華的) 민족저항의 분한(憤恨)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조사: 20081114 노병욱)

5. 김시습 관련유적

(1) 경북 경주 남산 금오산 용장사

매월당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1465 년 (세조 11) 금오산에 들어와 용장사에 경실(經室)을 짓고 수도와 집필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34 세 때인 1468 년 그의 대표적인 한문소설 <금오신화(金鰲新話)>를 완성했다.

매월당 김시습은 1455 년 삼각산 중흥사(重興寺: 현재 태고사 지역)에 머물던 중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사실을 알고는 모든 책을 불태운 다음 승려가 된다. 법명을 설잠(雪岑)이라고 하고 천하를 주유한다. 관서와 관동, 호남을 거쳐 경상도 금오산 아래 용장골로 스며들어 금오산실(金鰲山室)을 짓고 독서에 몰두한다. 그는 다시 용장사로 올라가 매월당서재(梅月堂書齋)를 마련하고 시문과 소설을 쓴다. 이때 완성된 시가 <금오산에서 놀던 기록(遊金鰲錄)>이고 한문소설이 <금오신화(金鰲新話)>이다.

김시습은 어릴 때부터 명리(名利)를 추구하지 않고 청빈하게 의리를 지키는 것이 꿈이었다. 그는 산수를 찾아 방랑하며 좋은 경치를 만나면 시로 읊는 것을 즐겼고 문장으로 관직에 오르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더욱이 자신이 생각하는 도를 펼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홀로 그 몸이라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용장골 산속으로 스며들었던 것이다.

(2) 충남 부여 무량사

매월당 김시습이 47 세 되던 해(성종 12 년, 1481)에는 또 홀연히 머리를 기르고 고기를 먹으며 다시 부인을 맞아들이기도 했으나 이듬해에 조정에서 윤씨의 폐비 논의가 일어나는 것을 보자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속세와의 인연을 끊었다. 그리하여 유랑 끝에 다다른 곳이 무량사였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고는 "네 모습이 지극히 약하며 네 말은 분별이 없으니 마땅히 구렁 속에 너를 버릴지어다"라고 자신을 평가하기도 했다.

율곡 이이(栗谷 李珥)는 그가 지은 [김시습전]에서 "재주가 그릇 밖으로 넘쳐흘러서 스스로 수습할 수 없으니 그가 받은 기운이 지나치고 중후함은 모자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면서도 다시 "그의 뜻은 일월과 그 빛을 다투게 되고 그의 품성을 듣는 사람들은 겁쟁이도 용동하는 것을 보면 가히 백세의 스승이 되고 남음이 있다"고 평가하였으니 뜻을 펼 세상을 만나지 못한 지식인의 처지를 참으로 적절하게 표현한 듯하다.

무량사에서 생을 마감할 때에 화장을 하지 말라는 유언을 하여 3 년 동안 시신을 두었다가 장사를 지내려고 열어 보니 그 모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아서 마치 살아 있는 듯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부처가 되었다고 하여 화장을 하니 사리 1 과가 나와서 부도를 세우고 안치하였고 한다.

(3)충북 청주 상당산성

매월당 김시습의 시비가 있는 곳이다. 상당산성 남문(控南門)앞에 이르면 잔디밭이 잘 조성돼 있고 그 중심부에 김시습(金時習)시비(詩碑)가 길손을 맞는다. 2000 년 7 월 문협청주지부와 청주시가 공동으로 세운 시비다. 수많은 시인 묵객이 이곳에서 시를 남겼으나 그중 김시습의 시 유산성(遊山城)이 가장 유명하다. 김시습 시비에는 바로 유산성이 새겨져 있다. 화강암과 오석이 한 쌍을 이루며 산성 앞에서 길손을 맞는 김시습 시비는 상당산성의 풍광과 자신의 천재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서의 '유산성'은 일반적으로 '산성에서 놀며'로 해석되나 문맥상 '산성에서 배우며'로 풀이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유(遊)자는 대개 '놀 유'로 쓰이나 '배울 유'의 뜻도 갖고 있다.

(참고: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 http://blog.naver.com/tnt62sik/120011010438)

(조사: 20081111 김주경)

<한국문학탐방 10 조>

월 명 사

목 차

1. 월명사의 생애
2. 향가에 대하여
3. 제망매가
① 원문과 해석
② 분석과 감상
4. 도솔가
① 해석
② 배경설화
5. 사천왕사지

20021104 권영석
20051134 이한나
20081119 손해림
20081129 이명길
20081140 주현태
20081143 최은주

1. 월명사의 생애

월명사(月明師, ?~?)

월명사의 정확한 생애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능준대사(能俊大師)의 제자였고, 경덕왕 때에 중, 낭도이자 대표적인 향가 작가였다. 경덕왕 때에는(그 당시 신라의 화랑도는 유학·도교·불교 모두를 숭상했다.) 화랑이자 중인 사람이 많았었다. 월명사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피리를 잘 불어 신통한 경지에 이르렀다. 四天王寺(사천왕사)에 있으며 저를 불었다. 어느 달밤에는 피리를 불면서 문 앞 큰길을 지나가니 달이 그 소리를 듣느라 가지 않고 멈추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곳을 月明里(월명리)라고 지었다 한다.

760 년(경덕왕 19 년) 4 월, 하늘에 해가 2 개가 나타났다. 그 태양은 열흘이 지나도록 사라 지지 않았다. 이때 경덕왕은 월명사를 불렀다. 그는 왕의 부름을 받아 이 괴변을 없애기 위 해 향가인 《도솔가(兜率歌)》를 지어서 읊자 괴변이 사라졌다 한다.

이어 죽은 누이를 위해 《제망매가(祭亡妹歌)》를 지어 부름으로써 그 영혼을 달랬다고 한다. 이 향가의 원문은 《삼국유사(三國遺事)》 5 권에 실려 있다.

참고 : http://100.naver.com/100.nhn?docid=120869

-20051134 이한나

2. 향가(鄕歌)에 대하여

향가는 향찰(鄕札) 및 이두(吏讀), 곧 한자(漢字)의 음(音:소리)과 훈(訓:새김)을 빌어서 표기된 노래이다. 문헌에 의하면 향가의 뜻은 사뇌가(詞腦歌) ·도솔가(兜率歌) 또는 국풍(國風) ·자국지가(自國之歌), 즉 국가(國歌), 신라시대 고유의 노래, 동방 고유의 노래이다. 그리고 좁은 뜻으로는 신라의 가요 또는 고향의 노래 등 국문학자들의 여러 해석이 있다. 또한, 《삼국유사(三國遺事)》 권 1 의 사뇌격(詞腦格), 《삼국유사》 권 2 의 사뇌가,

《균여전(均如傳)》의 사뇌 ·사뇌자(詞腦者) 등 명칭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이설이 있으나, 이를 모두 ‘ ’의 차자(借字)로 보고, ‘ ’는 동방(東方)이라는 뜻이므로 사뇌가는 ‘동방의 가요’라는 뜻으로 향가와 동의어(同義語)로 본다.

향가는 신라 진평왕 때의 《서동요(薯童謠)》에서 고려 광종 때 균여의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 11 수에 이르기까지 약 370 여 년 동안 성행한 듯하나, 현존하는 작품으로는

《삼국유사》에 14 수, 《균여전》에 11 수 도합 25 수이다. 여기에 최근에 2 편이 발견되어서 추가되었다. 그래서 총 27 수이다. 그것을 형식면에서 구분하여 보면 4 구체(四句體) ·8 구체 (八句體) ·10 구체(十句體)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4 구체로 된 작품은 비교적 원시적인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서동요》 《풍요(風謠)》 《헌화가(獻花歌)》 《도솔가》 등 4 수가 있다.

이 중 《서동요》와 《풍요》는 발생 전설 및 창자(唱者)나 내용상으로 보아 그것이 본질적인 민요이고, 《도솔가》나 《헌화가》 자체로 보아서는 민요가 아니지만 민요형식으로 지어졌다. 《도솔가》나 《헌화가》를 민요형식으로 보는 이유는, 신라의 가요형식을 이어받은 고려의 가요(俗歌)가 역시 4 구체였다는 점 외에도, 삼국시대 중엽까지 한국말로 된 노 래 중에 상류계급(지식층)과 서민층의 노래가 분립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악(歌樂)이 발달하고 사상 감정이 진보하여 4 구체에서 그 배구(倍句)인 8 구체가 발생되

었다. 초기는 기존 시가형과 병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새로운 시가형이 파생되었다 해서 기존 시가형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8 구체 향가가 이루어진 뒤에 도, 경우에 따라서는 4 구체의 민요형을 취해서 노래를 짓기도 했다. 그래서 월명사(**月明師**) 는 4 구체인 《도솔가》 외에도 10 구체인 《제망매가(**祭亡妹歌**)》를 지었다고 여겨진다. 그 리고 4 구체나 8 구체 또는 10 구체의 노래가 모두 한국말로 된 노래라는 뜻에서 향가라고 통 칭했다. 그 중 10 구체의 향가는 특히 사뇌야(**詞腦野**) 지방에서 주로 발달했고, 국가적인 가 악에서 그 음악을 사뇌악(**詞腦樂**)이라 해서 이 10 구체를 사뇌가라 부르게 된 것 같다.

한편 8 구체는 상당히 정제(**整齊**)된 형식으로 발전되었다. 전·후절의 구별이 없이 8 구로 되어 있으며, 4 구체가 발전된 형태이다. 해설 역문(**譯文**)에 의하면 8888, 8888, 후구 88 의 형식을 취한 듯하며,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처용가(**處容歌**)》의 2 수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 10 구체는 향가의 형식이 거의 완성된 단계로서, 전후 양절을 나누어 전절 8 구에 후절 2 구, 모두 10 구로 된 향가의 대표적 형식이다.

여기에는 《혜성가(**彗星歌**)》, 《원왕생가(**願往生歌**)》, 《원가(**怨歌**)》,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 《안민가(**安民歌**)》, 《천수대비가(**千手大悲歌**)》, 《우적가(**遇賊歌**)》를 비롯해서 《예경제불가(**禮敬諸佛歌**)》, 《칭찬여래가(**稱讚如來歌**)》, 《광수공양가(**廣修供養歌**)》, 《참회업장가(**懺悔業障歌**)》, 《수희공덕가(**隨喜功德歌**)》, 《청전법륜가(**請轉法輪歌**)》, 《청불주세가(**請佛住世歌**)》, 《상수불학가(**常隨佛學歌**)》, 《항순중생가(**恒順衆生歌**)》, 《보현회향가(**普賢廻向歌**)》, 《총결무진가(**總結无盡歌**)》 등 18 수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향가들은 《혜성가》에서 그 형식적인 완성을 찾아볼 수 있다. 향가의 형식상 특징은 종장(**終章**)이 2 구로 이루어지고 처음에 반드시 '아으(**阿也**)'의 영탄구(**詠嘆句**)가 붙어 있다. 이는 후에 발생한 시조(**時調**)의 종장 첫 구에 흔히 나타나며, 가사(**歌辭**)에도 형식상의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향가의 형식이 후대 한국 시가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제 1 장의 첫 구절은 다른 구절들에 비해 그 길이가 짧고 전편의 길이는 자수와 음절수로 보았을 때 대체로 80 내지 90 사이에서 약간의 더함이 있다고 본다. 이들 향가를 내용별로 보면, 《서동요》와 《풍요》 등 동요와 민요가 있고, 《혜성가》와 《처용가》 등 축사(**逐邪**)의 노래, 《원가》 등 연군(戀**君**)의 노래, 《우적가》 등 설도(說**道**)[24]의 노래, 《안민가》 등 치국안민(**治國安民**)의 노래, 불교예찬의 《보현십원가》 등 다양한 주제를 택하였다.

향가의 작가로는 득오곡(**得烏谷**), 충담사(**忠談師**), 처용랑(**處容郎**), 희명(**希明**), 광덕(**廣德**), 월명사, 융천사(**融天師**), 신충(**信忠**), 영재(**永才**) 및 균여대사 등이 있다. 이들을 성분별로 보면 승려·화랑·여류·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별로는 불교관계(18 수), 군신관계(2 수), 남녀관계(2 수), 붕우관계(2 수), 기타(1 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작가별로는 승려 작(18 수), 화랑 작(3 수), 여류작(1 수), 민요(2 수), 실명(**失名**, 1 수) 등이다. 한편, 형식상 으로는 10 구체(19 수), 8 구체(2 수), 4 구체(4 수) 등이다. 현존하는 향가 25 수가 수록된 문헌 은 《삼국유사》(14 수)와 《균여전》(11 수)가 있다.

-20081129 이명길

3. 제망매가

24) (說**道**):도리를 설명하다.

①원문과 해석

<원문>	<해독문>
生死路隱	**生死** 길흔
此矣有阿米次伊遣	이에 이샤매 머뭇그리고,
吾隱去內如辭叱都	나 가 다 말ㅅ도
毛如云遣去內尼叱古	몯다 니르고 가 닛고
於內秋察早隱風未	어느 이른 매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이에 뎌에 러딜 닙 ,
一等隱枝良出古	가지라 나고
去奴隱處毛冬乎丁	가논 곧 모 론뎌.
阿也 彌陀刹良逢乎吾	아야 **彌陀刹**아 맛보올
나 道修良待是古如	**道** 닷가 기드리고다.

<해석>

生死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몯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彌陀刹**에서 만날 나

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②분석과 감상

《위망매영재가(**爲亡妹營齋歌**)》라고도 한다.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하여 이 노래를 지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니 갑자기 광풍이 지전(**紙錢**)을 날리어 서쪽으로 없어졌다고 한다. 이 지전은 죽은 자에게 주는 노자(路資)로 지금도 장송(**葬送**)때 볼 수 있는 것으로 꼭 불교 의식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죽은 뒤의 세계라고 하여 현세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 데서 나온 의식이다.

형제를 한 가지에 난 나뭇잎에 비유하고, 누이동생의 죽음을 나뭇잎이 가을철에 떨어져가는 것에 비하여 누이를 그리워하며, 미타찰(**彌陀刹**) 곧 극락에서 도를 닦아 기다려 달라는 내용으로 되었다. 이 향가는 향찰(**鄕札**)로 표기된 원문이 《삼국유사(**三國遺事**)》 5 권에 실 려 전하고 있다.

1 행에서는 삶과 죽음의 길이라는 두 가지의 상황이 제시된다. 인생사의 가장 큰 갈림길인

'삶과 죽음의' 길의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2 행에서는 *'이에 있으매 애끊이고'*를 통해 누이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넘나드는 것을 보며 무엇도 도와줄 수 없고, 대신 해 줄 수도 없는 무력한 자신의 애타는 심정을 말하고 있다.

3-4 행에서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누이동생이 *'나는 간다'*는 말을 하고 있다. 지금 누이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을 접하는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다. 그것을 알게 된 월명사는 어찌 이르고 가느냐고 애통해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두려운 상황 앞에서 불안해하며, 인간의 나약함과 무력함에 대해 인식하며 괴로워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보인다. 1-4 행에서는 현실세계에 발붙이고 살던 나약한 존재인 인간이 낯익은 현실세계를 떠나, 막연한 두려움의 세계인 죽음의 세계로 떠남에 대해 초조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애끊이고'라는 절절한 말을 통해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어서 5-6 행에서는 앞의 처절한 상황을 직유와 은유법을 사용해서 그 상실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조락의 이미지를 가진 가을이라는 계절에, 생경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이른'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는 것은 고도의 시적 기법이다. 또한 고난과 쓸쓸함의 이미지를 가진 '바람'이라는 시어를 사용해서 이별에 따른 감정을 더욱 절실하게 드러낸다.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의 무력하고 나약한 이미지를 빌려, 죽음이라는 절대 상황 앞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누이동생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절절한 슬픔의 시상은 7-8 행으로 이어져 *'한가지에 나고도 가는곳은 모르는구나'*라는 발화로 표출된다. 이것은 같은 부모에게서 나서 자란 동기간인 누이동생과 월명사가 현실세계에서는 함께 하고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여기저기 흩어지는 나뭇잎처럼 사방으로 흩어지는 신세가 되는 것을 안타깝게 말하고 있다.

9-10 행에서는 감탄으로 시작한다. 시적 화자가 덕업을 쌓아서, 누이까지도 열반의 길에 들어 함께 미타찰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누이와 만날 날을 기약하며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고 한다. 결국 현실에서 살고 있는 시적 화자와 초월적인 세계로 떠나게 된 누이동생간의 간극을 메워, 초월적인 세계를 지향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유해춘, 「월명사의 향가문학과 그 배경설화의 연구」, 『어문론총』, 31 호, 1997 년, 8 월. 김혜진, 『향가의 서정성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05 년

http://blog.naver.com/nsunday

http://100.naver.com/100.nhn?docid=137486

-20081129 손해림
-20081143 최은주

4. 도솔가(兜率歌) 작품분석

①원문과 해석

<원문>	**<현대어 풀이>**
今日此矣散花唱良	오늘 이에 산화 불러
巴寶白乎隱花良汝隱	뿌린 꽃이여 너는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곧은 마음의 명
받아 彌勒座主陪立羅良　　미륵좌주 뫼셔라

760 년(경덕왕 19) 4 월 초하루, 태양이 두 개로 나타나서 열흘동안 없어지지 않으므로, 왕 명에 따라 연승 25)으로 뽑힌 월명사(**月明師**)가 산화공양을 하면서 《산화가》도 부르고 이 노래도 지어 부르자, 괴변이 곧 사라졌다는 유래가 《삼국유사》 권 5 에 전한다. 《삼국유 사》쓴 일연(**一然**)은 이 노래를 《산화가》가 아니라 《도솔가》로 보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 향가는 《삼국유사》에 이두(**吏讀**)로 된 4 구체의 원가와 한역시가 함께 실려 있어서 향 가의 해독(**解讀**)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도솔은 미륵을 지칭한 말로서, 미래불로서의 미륵불을 모시는 단을 모아놓고 이 노래를 불러 미륵불을 맞이하려고 한 것이다. 떨기 꽃을 통하여 미륵불을 모시겠다는 뜻이므로, 전형적인 찬불가(**讚佛歌**)이다.

②배경설화

경덕왕 19 년 4 월 초하룻날에 태양 2 개가 나타나 열흘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일관 에게 물으니 연승을 청하여 산화공덕을 하면 없어지리라 하므로, 조원전에 단을 만들고 왕 께서 청양루에 나오시어 연승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월명사가 남쪽 언덕길 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왕이 사람을 시켜 불러 들여 단을 열고 아뢰라 명하니, 월명사가 말하되 “신은 중이나 또한 화랑으로 향가는 알거니와 불교의 노래는 능하지 못합니다.”하 니, 왕이 이르되 이미 연승에게 시키려 하였으니 향가라도 좋다 하시므로 월명사가 왕명에 따라 《도솔가》를 지었다.

다시 말하면, 윗글처럼 해가 두 개가 되어 경덕왕이 점을 치는 일관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어서 “인연 있는 스님에게 부탁하여 산화공덕 26)을 지으면 예방이 될 것입니다.”하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때 마침 “월명사”스님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불러들여, 산화공덕의 노래 짓는 것을 부탁했다. 월명사는 “저는 그저 국선무리에 속할 뿐이며, 오직 향가만 알고 범패소리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사양했다. 이에 왕은 “이미 우리가 인연 있는 스님으로 그대를 정하였으니 향가를 지어도 좋다.”고 한다. 이 노래가 바로 《도솔가》이다.

-20081140 주현태

5.사천왕사지

사천왕사지는 사적 제 8 호로, 낭산(狼山) 기슭 신문왕릉(**神文王陵**)의 옆, 선덕여왕릉(**善德 女王陵**)의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절터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679 년(문무왕 19)에 창 건되었다고 전해진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가장 먼저 창건된 사천왕사는 신라 불 교의 호국적 속성과 신라인들의 불교관 및 우주관을 잘 보여주는 사찰이다.

674 년(문무왕 14) 당나라는 설방(**薛邦**)을 장수로 삼아 50 만 대군으로 신라를 공격하려 하 였다. 이에 문무왕(**文武王**)이 명랑법사(**明郎法師**)에게 당의 침입을 막을 계책을 구하자 명

25) 있는 스님.
26) 산화공덕(散花功德):불교의 전통의식이다.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 그 발길을 영화롭게 한다는 축복의 의미이다. 부처님은 석가모니 이외의 모든 부처를 의미한다.

랑법사가 신유림에 사천왕사를 짓고 밀교의 문두루비법(**文豆婁秘法**)을 쓰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나라의 침입이 급박하여 절을 완공할 시간이 없어 오색의 비단으로 절을 짓고 초목(**草木**)으로 오방신상(**五方神像**)을 만들어 12 명의 밀교 승려와 함께 문두루비법을 행하자,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풍랑이 크게 일어 당나라 군대의 배가 침몰되었다고 한다. 그 뒤 정식으로 절을 짓기 시작하여 5 년만에 완공하여 사천왕사라 명하고, 국가의 진호(**鎭護**)를 위한 국찰(**國刹**)로 삼았다.

이런 영험을 입어서인지 절에는 후대에도 이적이 잇따랐다. 《삼국유사》는 9 세기 신라의 혼란기에 사천왕사 벽화의 개가 나와 짖거나 탑의 그림자가 거꾸로 선채 움직이지 않았다는 묵시록 같은 이야기들을 전한다.

이런 호국사찰의 면모를 지금도 보여주는 실체가 절터에서 나온 수십여 편의 녹유 사천왕 부조조상들이다. 정성스럽게 녹색, 갈색 유약을 입히고 악귀를 짓누르는 사방 사천왕상의 모습들을 부조로 새긴 유물들은 1980 년대 경주박물관의 노력으로 상당부분 복원되었다. 신라 최고의 조각가로 알려진 양지(良**志**)스님의 것으로 전해지는 부조상들은 놀라운 생동감을 자랑하며, 악귀 등이 짓는 표정의 미묘함과 다양한 자세들 또한 압권이다.

가람은 금당지(**金堂址**)의 앞에 동서로 목탑(**木塔**)을 세웠으며 금당의 북쪽 좌우 목탑과 대응되는 곳에는 경루(**經樓**)를 두었다. 금당지는 초석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데 초석에 의하면 정면 5 칸, 측면 3 칸 건물이며 건물지의 중간 부분에 불좌대의 지대석으로 추정되는 장 대석이 남아 있다. 동탑지는 130㎝ 내외의 높이로 토단이 남아 있으며, 사방 3 칸으로 초석 이 남아 있다. 탑지의 중앙에는 118㎝ 내외 크기의 심초석(**心礎石**)이 남아 있고, 여기에 사 리공(**舍利孔**)이 있다. 서탑지는 동탑지와 동일한 형태로 심초석의 사리공도 같은 크기이다. 탑지의 앞에 중문(**中門**), 금당지의 북쪽에는 강당지(**講堂址**)가 있고 이들 건물을 둘러싸는 회랑터(**回廊址**)가 있다. 절터에는 머리부분이 없어진 귀부(龜趺)2 기, 비신(**碑身**), 높이 2.4m 인 1 기의 당간지주(**幢竿支柱**)가 남아 있다. 절의 동편에 남아 있는 귀부는 사실적인 표 현수법과 등에 새겨진 음각 등의 아름다움이 뛰어나며 무열왕릉의 귀부에 버금가는 뛰어난 것이다. 월명사(**月明師**)가 바로 이 절에 있었다.

-20021104 권영석

<한국문학탐방 11 조>

성덕대왕 신종

목 차

1. 성덕대왕신종 소개

2. 성덕대왕신종 설화

3. 신종을 소재로 한 작품들

20021120 노재화
20061116 박지운
20071107 김보민
20081116 문숙경
20081141 채상윤
20081142 최성은

1. 성덕대왕신종 소개

1)성덕대왕신종

성덕대왕신종은 1962 년 12 월 20 일 국보 제 29 호로 지정되었으며 경북 경주시 인왕동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성덕대왕신종의 크기는 높이 3.75m, 입지름 2.27m, 두께 11~25cm 이며 원래는 봉덕사에 달았으므로 봉덕사종으로 불렸으나 봉덕사가 폐사된 뒤 지금의 국립경주박물관에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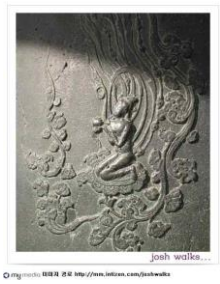
2)명명하게 된 동기

신라 경덕왕과 혜공왕은 부왕인 성덕왕의 위업을 추앙하기 위하여 구리 12 만 근을 들여 이 대종을 주조하려 하였다. 이 종은 처음 봉덕사에 달았으므로 봉덕사종이라고도 한다. 봉덕사가 폐사된 뒤 용묘사로 옮겼다가 다시 봉황대 옆에 종각을 지어 보존하고 있었다. 1915 년 종각과 함께 동부동 구박물관으로 옮겼으며 박물관이 신축 이전하게 되어 1975 년
5 월 20 일에 이 종각으로 옮겨 달았다. 종을 주조할 때 아기를 시주하여 넣었다는 애틋한 설화에서 유래한 에밀레종, 성덕왕의 위업을 추앙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성덕대왕신종이라 부른다.

3) 성덕대왕신종의 모양

종의 입 둘레는 팔능형이고 종 머리에는 용머리와 음관이 있다. 특히 음관은 우리나라 종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로서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한다고 한다. 몸체의 좌우에는 이 신종의 내력을 적은 양주 명문이 있으며 앞뒤에는 두 개의 당좌가 있고, 유곽 및 네 곳에는 구름을 타고 연화좌에 앉아 향로를 받는 비천상이 천의 자락을 휘날리고 있다.

① 문양(비천상-종 둘레에 세겨져있는 그림)



에밀레종에는 똑같은 비천상이 종 둘레에 네 개가 양각되어 있다. 금방이라도 하늘로 올라갈 것만 같은 인물이 중앙에 연화좌위에 앉아 염원을 드리는 것 같다. 성덕대왕 신종의 비천상이 제일 우아하고 예술적인 가치가 훌륭하다고 한다.

② 성덕대왕신종을 매달고 있는 용고리

고작 지름이 8.5cm 밖에 안 되는 용고리 하나로 18.5t 이 넘는 무게를 지 탱 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로도 만들지 못해서 1300 년 전부터 써 오던 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한다. 이유인즉 단순한 쇠막대기가 아니라 속이 빈 쇠 막대기를 여러 번 두들겨서 겹겹이 하나의 쇠막대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③ 명동(종 밑에 타원으로 푹 들어간 땅)

명동의 역할은 일종의 공명동 역할을 해서 타종소리가 은은하고 오래 지속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에밀레종의 명동은 신라시대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신라시대의 명동자리는 모두 파괴되고, 현재 그 명동의 형상과 치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④ 에밀레종에 세겨져 있는 글자.

무릇 심오한 진리는 가시적인 형상 이외의 것도 포함한다.
눈으로 보면서도 알지 못하며,
진리의 소리가 천지간에 진동하여도 그 메아리의 근본을 알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때와 사람에 따라 적절히 비유하여 진리를 알게 하듯이
신종을 달아 진리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참조>

http://blog.naver.com/windwindwin?Redirect=Log&logNo=10003911136

www.naver.com

동아백과사전

2. 성덕대왕신종의 설화

종을 만들 때 아기를 넣어 만들었다고 해서 유명해진 성덕대왕신종의 설화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성덕대왕신종이라고 하면 잘 모르다가도 에밀레종이라고 하면 쉽게 안다. 이렇듯 성덕대왕신종은 우리들에게는 에밀레종이라는 명칭으로 더 친숙하게 다가온다.

성덕대왕신종이 에밀레종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은 그 여운의 소리가 "에밀레" 같고, 그 뜻은 "에밀레라" 즉 "에미 탓으로"와 같기 때문이다. 내용인즉 경덕왕이 대종의 주조를 위한 성금을 모으기 위하여 전국에 시주 중을 내보냈을 때 어느 민가의 아낙네가 어린애를 안고 희롱조로 "우리 집엔 시주할 것이라고는 이 애 밖에 없는 데요"라며 스님을 놀렸다는 것이다.

대종이 연신 실패를 거듭하자 일관(日官)이 점을 쳐서 이것은 부정을 탄 것이니 부정을 씻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러 갈래로 그 부정을 추정한 결과 그 아낙네 탓으로 단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애는 "에밀레"로 되었다는 얘기이다.

이 전설은 반강제 성금을 내야만 했던 민중의 고통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온 국민의 국가적 총력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아기가 진짜로 희생됐다, 아니다는 엇갈린 견해가 여지껏 팽배하다.

희생됐다는 주장에는 사람의 뼛속에 있는 인(P)의 성분이 신묘하게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사람의 뼈, 동물의 뼛속에 있다는 인의 성분은 물질의 합성, 합금에서 신기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예부터 알려져왔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그 땅다지기를 하면서 사람의 시신을 썼다는 얘기도 그 중 하나이다. 또 이 점에는 상한시대의 저수지 중 김제의 벽골제(碧骨提)가 제방을 쌓을 때만 해도 조수가 여기까지 미쳤다고 한다. 물 밑에 제방 기초를 해놓으면 조수가 말려와 쓸어버리는 바람에 공사는 매번 원위치로 돌아갔단다.

이럴 때면 으레 공사 감독이 꿈에 신령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우리나라 전설의 상투적 얘기다. 신령님은 공사 감독에게 '벽골' 즉 '푸른 뼈'를 흙과 함께 반죽해서 쌓으라고 했다. 짐승의 뼈는 대개

푸른 기를 조금씩 띠고 있는데 특히 말뼈가 푸른다고 한다. 공사는 말뼈를 갈아 섞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하였다.

아니라는 주장은 전설 자체가 만들어낸 얘기일 뿐이며 아무리 사람의 인이 신묘하다 할지라도 27 톤의 쇳물에서 그 양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 쇳물은 한 가마에서 끓인 것도 아니라도 가니 100 개 이상을 동시에 사용한 것이니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P. 189-190)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전설 속에서, 여운이 있어서 그것을 신비롭게 생각했고 그 여운의 생김을 소릿 말로 옮겨보려 했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느 종에나 그처럼 아름다운 여운이 있었다면 이런 전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성덕대왕신종은 숱한 시행착오 속에 완성된 밀랍형 주조의 첫 작품이고, 신비로운 여운이 있는 종의 첫 탄생이었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그 여운이 신기하여 무슨 소리 같다는 둥 하던 사람들의 얘기가 “에밀레”로 결론을 내게 되었고, 나라에서는 신종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명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다고 한다. ‘신종이 만들어지니 그 모습은 산처럼 우뚝하고 그 소리는 용의 읊조림 같아 위로는 지상의 끝까지 다하고, 밑으로는 땅속까지 스며들어 보는 자는 신기함을 느낄 것이요, 소리를 듣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또 이에 따른 일화로는 20 세기로 들어와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두 번의 복제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하나는 미국 건국 200 주년을 기념으로 ‘우정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한 공원에 설치되었고 또 하나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 걸려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에밀레종의 신비한 소리를 재현하진 못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일화로는 이탈리아 학자가 포항종합제철에 왔다가 한국의 철 문화를 보기 위해 찾던 중에 가까운 경주에서 에밀레종을 보고 주물의 기법과 크기, 종소리에 감탄을 하고, “1000 년 전에 에밀레종과 같은 훌륭한 종을 만들 정도로 철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 민족이 어떻게 나 같은 하찮은 학자에게 자문을 구하는가” 라는 일화도 있다.

3. 신종을 소재로 한 작품들

우리나라 국보 제 29 호인 성덕대왕 신종은 신라 35 대 경덕왕과 그의 아들 혜공왕에 걸쳐 만들어진 종이다. 신라 제 33 대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만든 이 종은 제작 과정에서부터 믿기 힘든 슬픈 전설이 전해져 온다. 오늘날의 여러 시인들은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의 슬픔을 여러 모습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제 4 회 신라문학대상 시 부문에서 당선된 김천우 시인은 당선작 ‘에밀레종’에 그 슬픔과 한을 담아내고 있다.

에밀레종 - 김천우

누가 저 사연을 보고
천년의 세월이라고 했던가

골마다 깊어진 여운
산울림으로 되돌아와서

우리네 마음 한자락
젖어 배게하는가

한이 깊다면
차라리 혀 깨물어 피흘리며
죽기나 할것이지

살아 살아서 흔들어 놓는 너는
이 세상의 무엇을 말함인가

에밀레 에밀레

그 속깊은 뜻이 어미 찾는 한이라면
저 심산 유곡에 소쩍새나 되어
밤마다 울고 웃기나 할 것이지

산 그림자 드리운 서라벌 땅에
추억에 질린 산이 화석처럼 굳어
깨어나지 못할 마술에 걸린 채

이젠 울어도 성숙한 목소리가
안개로 묻힌다

김천우 시집 <고백>(천우) 중에서

당시 당선 소감에서 김천우 시인은 자신의 목소리로 속삭이듯 옛 이야기 같은 시를 쓰고 싶다고 밝혔다. 작품 속에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남기기 보다는 애련함을 담고 싶다고 말했다. 아주 오래전 에밀레종에 담겨진 슬픔이 오늘날 종 앞에서 시를 읽는 우리에게도 전해진다. 작가의 바람처럼 이 작품은 독자에게 한과 애련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우리에게 “울지 마라/외로우니깐 사람이다”로 시작하는 ‘수선화에게’라는 시. 이 시의 저자인 정호승 시인은 『에밀레종의 슬픔』이라는 장편동화를 집필했다. 어린이들을 위해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쓴 동화 『에밀레종의 슬픔』은 우리의 명종 에밀레종을 훔쳐가려는 일본인들과 마을 사람들의 대립과 에밀레종에 얽힌 전설 등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이야기 하고 있다. 동화 속에서 에밀레종은 단순히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보물이 아니다. 경주 봉황대에 있던 종이 일본인들에 의해 동해안 감포 앞바다까지 옮겨졌지만 그곳에서 종은 움직이지 않았다. 또한 일본인들의 횡포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으면서도 누구 하나 종에 대해 불평을 하는 이가 없었다. 에밀레종은 일제 강점기, 비록 일본에 의해 짓밟히고 억압 받으면서도 지켜왔던 민족의 자존심과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강원대학교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96 년 창작과 비평 시 ‘대관령 옛길’로 등단한 김선우 시인은 ‘에밀레종 소리 듣다, 일식을 보다’라는 작품 안에 에밀레종의 슬픈 울림을 담고 있다.

에밀레종 소리 듣다, 일식을 보다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 네 본디 얼굴은 어떠했느냐

그대를 보내고 그대로 인해 내가 아프고
아픈 나를 염려해 먼저 간 그대가 아파서
에밀레 - 연지(蓮池) 밖 천리가 아프고
하여 내가 아프고

나는 내가 없는 곳에서 비롯되었으니
그대의 감아쥔 청동 손바닥에 매달린 나여
내 차가운 손바닥에 매달린 그대여

나 아닌 것들이 나를 빚어
그대 아닌 것들로 빋어진 그대를 사랑하오니

들으소서 들으소서, 강 건너 시름 많은 사랑이 피고 지는 동안
이별을 안 꽃들이 무덤에 들고 별의 뿌리가 황도(黃道)를 닫는 동안

에밀레 - 나 아닌 나의 삭신들, 무릎이 해진 어미 아비여

김선우 시집 <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신가>(문학과지성사) 중에서

<한국문학탐방 12 조>

연오랑 세오녀 설화

목 차

1. 개관

2. 원문과 해석

3. 설화의 의미와 상징성

4. 설화 내용과 실사

5. 설화의 배경과 관련 지명

20021137 송재일
20051128 윤 숙
20081117 박아름
20081118 손수지
20081120 신경립
20081126 유민우
20081137 전아름

1. 개관

* 종류: 日月신화
* 성격: 신화적
* 주제: 새로운 세계의 개척
* 의의: 우리나라에 전하는 유일한 문헌 日月신화

2. 한문원문과 해석

연오랑 세오녀(延烏郎 細烏女) 설화는 신라 때의 설화로서 고려 초엽 박인량이 엮은 <수이전(殊異傳)>에 실렸던 것으로, 지금은 <삼국유사(三國遺事)>와 <필원잡기(筆苑雜記)>에 수록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삼국유사에 실린 원문은 다음과 같다.

東海濱有延烏郎細烏女夫婦而居(동해빈유연오랑세오녀부부이거)
동해 바닷가에 연오랑 세오녀 부부가 살고 있었다.
一日延烏歸海採藻(일일연오귀해채조)
하루는 연오가 바다에 가서 해초를 캐고 있었는데,
忽有一巖負歸日本國人見之曰(홀유일암부귀일본국인견지왈)
갑자기 바위 하나가 연오랑을 업고 일본으로 건너가 버렸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此非常人也乃入爲王(차비상인야내입위왕)
연오를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 여겨 왕으로 모셨다.
細烏怪夫不來歸尋之見夫脫鞋(세오괴부부래귀심지견부탈혜)
세오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찾던 중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을
발견했다.
亦上其巖巖亦負歸如前(역상기암암역부귀여전)
세오 또한 그 바위에 올라타니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其國人驚訝奉獻於王(기국인경아봉헌어왕)
그 나라 사람들이 놀라서 왕에게 바치니
夫婦相會立爲貴妃(부부상회입위귀비)
부부는 서로 만나고, 세오는 왕비가 되었다.
是時新羅日月無光日者奏云(시시신라일월무광일자주운)
그때부터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日月之精降在我國今去日本(일월지정강재아국금거일본)
(천문을 맡은 자가 아뢰어 말하기를)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지금은 일
본으로 가버렸다.
故致斯怪王遣使求二人(고치사괴왕견사구이인)
왕은 사신을 보내어 두 사람을 돌아오게 하였으나
延烏曰 我到此國天使然也今何歸乎(연오왈 아도차국천사연야금하귀호)
연오랑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이니,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雖然朕之妃有所織細 以此祭天可矣 仍賜其(수연짐지비유소직세 이차제천가의 잉사기)
그러나 아내가 짠 가는 명주를 줄테니 이것을 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빛을 찾
을 수 있을
것이오." 使人來奏依其言而祭之然後日月如舊(사인래주의기언이제지연후일월여구)
사신이 돌아와 아뢰고 그 말에 따라 제사를 지냈더니 해와 달이 예전과 같이 빛났다.

藏其於御庫爲國寶名其庫爲貴妃庫　祭天所名迎日縣(장기어어고위국보명기고위기비고　제천소명영일현)

그 명주를 어고에 두고 국보로 삼고 그 창고를 귀비고라 하고, 제사 지낸 곳을 영일현이라 하였다.

-20021137 송재일-

<출처>　http://blog.naver.com/sadfog?Redirect=Log&logNo=120006105397

3. 설화의 의미와 상징성

이 설화에서는 이름 속에 들어 있는 글자 '오(烏)'가 문제가 된다. 까마귀인 것이다. 까마귀는 우리에게 흉조, 죽음, 저승사자, 간신, 나쁜 무리 등으로 그 상징성이 알려져 있고, 서양에서는 탐욕이나 죽음, 지혜, 풍요, 창조자, 길조, 흉조 등 다양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신화에서는 까마귀는 '태양'을 상징하게 된다. 이것은 고대 중국의 신화나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나타나는데 태양 속에 사는 새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까마귀는 반포조(反哺鳥)라 하여 효성스러운 것의 대명사로도 알려져있다.

연오는 대양 속에 까마귀가 산다는 양오전설의 변음으로 볼 수 있고, 세오도 쇠오, 즉 금오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연오와 세오의 이동으로 일월이 빛을 잃었다가 세오의 비단 제사로 다시 광명을 회복하였다는 일월지의 전설과 자취는 지금도 영일만에 남아 있다. 영일현의 영일(迎日), 즉 '해맞이'의 지명도 태양 신화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일본서기>의 <천일 창설화>도 같은 류의 광명의 신, 즉 태양의 이동 신화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동남해안과 일본의 이즈모 지방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의 전승로였음을 감안해 볼 때, 그러한 문화를 따라 이동한 태양 신화의 한 모습을 이 설화가 잘 설명하고 있다.

아달라왕 시호를 분석해보면 아(阿)는 '아침'의 준말로서 아침[朝], 새[新], 첫[初] 등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 新이고 달(達)은 '땅'을 뜻하는 우리말 이두표기고 라(羅)는 역시 나(那)와 같은 소국 또는 '나라'를 뜻하는 말이므로 결국 "아침 땅의 나라"라는 뜻으로 신라라는 국명과 같은 것이다. 왕의 시호를 이두로 표기한 것이다. 초기에는 후대에 쓴 시호란 개념도 없었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이것은 고려인들이 지은 사서에 나오므로 이두식으로 표기하여도 시호인 것이다.

연오랑과 세오녀는 "제철집단의 지도자"였다. 고대에는 제철기술을 가진 집단이 우수한 무기와 농기제조 및 무역으로 세력을 잡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신라를 떠나 열도로 가버리자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고 표현한 것이다. 신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이 제철집단이라는 것은 이들의 이름에서도 확인된다. 영어로 대장장이를 'blacksmith'라고 한다. 왜 검다[black]는 말이 붙었을까? 그것은 고대에는 숯으로 야철(冶鐵)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대체로 옷이며 외모가 평소 일을 할 때는 검었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현상이나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동일한 것이다. 연오랑과 세오녀의 '까마귀 오(烏)'자는 흑(黑)이나 현(玄)과 바로 통하는 말이다. 烏는 곧 'black'이다. 현대에도 그렇게 쓴 예를 들면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에 공학에서 제도(製圖)할 때의 도구로서 먹물이 나오는 펜[pen] 같은 것을 오구(烏口)라고 했다.

까마귀도 옛날엔 음이 '가마기'였을 가능성이 많다. 새[鳥]에 붙이는 명사형어미는 대체로 '이'이고 기러기, 갈매기, 뻐꾸기 등과 같이 '가막'에 어미 '이'가 붙어 된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늘날의 표준말에서 '위'로 발음하는 것도 경상도사투리로는 '이'로 발음하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귀하다'를 '기하다'로 발음하는 경우다. 물론 요즘은 공교육에 의해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사전에 보면 까마귀의 고어가 '가마귀'로 나오고 흔히 까마귀와 까치를 합쳐서 부를 때 다시 축약현상이 발생하여 '까막까치'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어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발음의 변화과정을 추정해보면 가막>가마기>가마귀>까마 귀로 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연오랑의 '펼/늘일 연(延)'자는 단조 즉 두드려 펴는 것을 뜻하고 세오녀의 '가늘 세(細)'자는 가늘게 단조하는 정밀단조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본다. 일월이란 말도 음양의 개념으로 남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야철과도 관련이 있다. 日은 밝고 뜨겁고 도가니에서 벌겋게 녹은 쇳물을 은유하고 열간단조를 상징하기도 한다. 月은 빛이 차가우므로 냉간단조를 상징한다고 본다.

또 한 가지 연오랑과 세오녀, 이들은 도왜시기가 다르고 각기 다른 집단의 지도자였고 부부가 아니다. 다만 설화구성상 부부로 표현했을 뿐이다. 설화 속에서도 이들이 부부였다면 왕비가 아닌 귀비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집단의 성격이 같고 선주지가 가까이 있다보니 설화로 꾸미면서 부부로 표현한 것이다.

이들이 도해한 위치는 그들의 선주지에서 바로 갔을 것으로 본다. 설화상 동해바닷가의 영일과 월성 앞바다에 그대로 해당되고 각각의 선주지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바닷가에서 해조를 땄다고 하는 것도 분위기상 사실은 질 좋은 사철(砂鐵)을 채취하고 선별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바위[一巖/一云一魚]란 당연히 이들이 집단으로 떠나는 선단이다. 가야인들은 선단을 거북[龜]으로 나타내는데 이들은 바위라고 표현했다. 서기의 신대기에 보면 배를 천반선이라 하여 바위[磐]가 들어가기도 한다. 반(磐)이란 "넓적한 큰 바위"를 말한다. 원양항해가 가능한 대형선과 그것들로 이루어진 선단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이주였다는 말이다. 바위라고 하면서 물고기[魚]라고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배[船]를 암시해주는 것이다.

설화상 수동적으로 간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사실은 세력이 커 가는 신라 옆에 붙어있는 것보다는 질 좋은 철산지를 찾아 신천지로 적극적으로 갔다고 본다. 신라에 철을 단순하게 공급만 해주는 위치보다는 신천지에서 세력을 크게 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기 전에 신라 옆에서 신라에 철을 공급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늘의 뜻이라고 한 것은 현대인이나 고대인이나 인력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결과를 두고 운명적이라고 한다든가 흔히 신탁이나 하늘에 돌리는 속성이 있다.

세오녀가 보내온 사신은 제철기술자였을 것으로 본다. 전투를 하고 쫓겨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세력을 키우고 여왕에 공립된 후에 선주지에 있는 신라에 맨 먼저 사신을 보내고 화친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연히 이주 전에는 철도 거래를 했을 것이고 외교에 특별한 장애요인은 없었을 듯하다.

비단은 제철기술을 은유한 것으로 본다. 제철기술이 부족하니 귀한 비단으로 은유된 것이 다. 따라서 귀비고는 야철공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금오(金烏/三足烏)와 월신의 상징으로 알려진 금와(金蛙)는 고구려나 부여의 건국신화 및 철기문화의 융성과 관련하여 제철기술을 가진 커다란 두 집단의 융합을 상징한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든다. 금오는 풍수에서도 태양을 상징하고 제왕을 상징하기도 한다. 본 설화에서 음양개념의 일월지정으로 놓고 본 시각과 고구려의 금오와 금와는 흡사해 보이기도 한다.

가야의 철기문화와 태양신 숭배사상은 고구려의 철기문화와 태양신 숭배사상과 이런 상징성 면에서 흡사하게 보인다. 또 "(ㄱ+아래아+ㅁ)을 오[烏]"에서 ((ㄱ+아래아+ㅁ)[烏]으로 보

고 (ㄱ+아래아+ㅁ)[神]>감[神], 곰[熊]으로 분화되므로 감[烏]=감[神]으로 놓고 볼 때 고대 철기문화가 융성하던 시대에 고도제철기술을 가진 강력한 집단의 지도자를 감[神] 즉 감[烏]으로 상징하고 제왕을 은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오랑 세오녀 설화는 지금의 경북 영일과 월성 지역에 선주하던, 초기신라 건국세력과는 다른 집단으로서 바로 이웃에 있던 신라에 철을 공급해주다가 커 가는 신라에 철을 단순 공급만 해주던 위치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독자적인 길을 걷기 위해 신천지를 찾아 집단으로 이주하여 구주에 정착하게 된 제철집단 이주스토리의 실사를 절사하면서 그 대신 설화화한 것이다. 집단의 계보를 보면 신라건국세력도 아니고 가라세력도 아닌 제삼의 집단으로 판단된다. 이것도 결국은 고려인들이 반도에 있다가 반도 밖으로 나간 세력의 역사단절을 꾀한 사례 중의 하나로 본다.

-20051128 윤 숙, 20081117 박아름-

<참조> http://coo2.net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 작성자 청랑

4. 설화 내용과 실사

유사 기이 1 연오랑·세오녀설화

『제 8 대 아달라왕 즉위 4 년, 동해 바닷가에 연오랑과 세오녀가 부부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연오랑이 바다에 해조를 따러 나갔는데 갑자기 바위[巖/魚라고도 한다] 하나가 나타나 연오랑을 업고 일본으로 갔다. 그 나라 사람들이 보고서 말하기를 "이는 보통사람이 아니다"하고선 세워서 왕으로 삼았다[일본제기를 상고해보면 전후에 신라사람으로서 왕이 된 사람이 없다. 그러니 이는 변읍의 조그만 왕이지 참왕[眞王]은 아닐 것이다]. 세오녀는 남편이 오지 않는 것이 이상해서 가서 찾아보니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이 있었다. 그녀 또한 바위 위에 올라갔더니 그 바위는 또 전처럼 세오녀를 업고 갔다. 그 나라 사람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겨 왕에게 아뢰었다. 이리하여 부부가 서로 만나 그녀를 세워 귀비로 삼았다. 이때 신라에서는 해[日]와 달[月]이 빛을 잃었다. 일자가 왕에 아뢰기를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내려있었는데 이제 일본으로 가버렸습니다. 고로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왕이 사자를 보내 두 사람을 찾으니 연오랑은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인데 지금 어찌 돌아가겠는가. 그렇기는 하지만 나의 비(妃)가 짠 고운[細] 색비단이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지내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색비단을 주니 사자가 와서 보고했다. 그 말대로 제사를 지냈다. 그런 뒤에 해와 달이 전과 같았다. 그 색비단을 나라의 보물로 하고 어고(御庫)에 간수하였다. 그 어고를 귀비고라 한다. 또 하늘에 제사지낸 곳을 영일현 또는 도기야(都祈野)라 한다』

-20081126 유민우, 20081118 손수지-

<출처> http://coo2.net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 작성자 청랑

5. 설화배경과 日月과 관계된 지명

전국유일의 해를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포항의 영일만이다. 즉, 해를 맞이한다는 뜻이다. 영일은 오천읍/동해면/대송면을 합쳐서 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신라 경덕왕 16 년 임정현(臨汀縣), 한때는 오천현(烏川縣)이라 불려지다가 영일현으로 바뀌게 된다. 물가에 임하다 가까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영일(迎日)과 연일(延日)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같은 뜻을 내포하기도 한다. 영일이란 해를 맞이하고, 연일이란 해를 오래도록 비춘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근기국의 시초이

자 오랑우(烏郞友), 근오지(斤烏支) 등, 해를 상징하는 오(烏)자가 많이 등장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족오(三足烏)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장임에 틀림이 없다.

연오는 신라 아달라왕 시기에 제를 올리는 제사장이며 상당한 권력신분을 지닌 인물로서 당시 시대의 상황을 예측한다. 그러나 왕권까지 넘나드는 신분이기에 서로 내부적 갈등으로 말미암아 바위(물고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부족현의 왕이 되고 세오녀는 왕비가 되었다.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떠나자 온 세계가 빛을 잃어 암흑천지가 되었고 재차 사신을 보내어 돌아 올 것을 권유하지만 일본까지 온 것도 하늘의 뜻이니 아내가 짠 비단을 가지고 가서 일월지에 제사를 올리면 광명을 찾을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제를 올리자 빛이 돌아 왔고 신라에서는 비단을 보관하는 장소를 귀비하고 이름을 짓게 되고 이때부터 영일(迎日)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 영일군(迎日郡) – 1994 년 12 월 31 일자로 폐지된 영일군의 명칭은 1914 년 일제에 의한 전국행정구역 통폐합시 흥해군(興海郡), 장기군(長기郡), 영일군(迎日 郡), 청하군(淸河郡) 등 4 개군을 합하여 단일 군명을 정할 때 '삼국유 사'에 나오는 연오랑.세오녀의 영일을 따 명칭을 정하였으며 당시 영일 군 산하 18 개 면중에는 포항면이 포함 되었으며, 1949 년도에 포항읍 은 포항시로 승격되었다가 1995 년 1 월 영일군과 통합하였다.
* 도기야(都祈野) – 삼국유사에 의하면 일월에 제사지내던 지역이 도기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일제가 도기야라는 지명을 도구(都丘)로 변경시켰음. 현재 동해면 도구리에는 일월사당이 있음.
* 일월동(日月洞) – 포항시 남구에 일월동이 있음.
* 中明里 – 포항시 남구 延日邑에 소재하고 있는 洞으로 연오랑.세오녀 설화에 해와 달이 빛을 다시 찾았을 때 빛이 한가운데 비친 곳이라 하여 중명이라 했음.
* 오천읍(烏川邑) – 옛 일월면과 고현면을 합하여 1914 년 오천면이라 했는데 오(烏) 는 까마귀 즉 3 족오라 하여 발이 세 개 있는 까마귀는 민간설화에 해(日) 로 표현된다. 옛부터 이 지역을 영일 또는 오천이라 했음.
* 세계리(世界里) – 잃었던 해와 달의 빛을 다시 찾기 위해 하늘에 제사를 지낸 제단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며 해와 달이 빛을 찾았을 때 빛이 가장 먼저 비쳐 세계가 밝아졌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어릿불(魚龍불) – 원래는 어룡불이라 하였는데 변음되어 어릿불로 불리고 있다. 송도동 송도해수욕장에서 동해면 도구리(都丘里) 해수욕장까지 어릿불이라고 한다. 연오랑.세오녀설화에 두 부부가 바위 또는 고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설화내용에 물고기를 용으로 표현하여 부부가 떠나간 불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20081137 전아름, 20081120 신경립-

<출처>http://blog.naver.com/loveshake98?Redirect=Log&logNo=34556938